(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656 1981년10월28일(수)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Wednesday, October 28, 1981

한국일보 토론토

NOV 2 1981
EAST ASIAN 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TORONTO, CANADA M5S 1A5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식 자 부 장 : 박 부 웅
편집자문위원 : 윤 방 현

사격챔피언에 원종필씨

사격협회, 사냥클럽도 구상

재 캐나다사격협회(회장 백경락)주최 제4회 창설기념 선수권 대회가 24일 상오10시 토론토 건클럽에서 열려 20명의 선수들이 열전을 벌였다.

실력에 따라 4개조(AA, A, B, C조)로 나뉘어 벌어진 이번 사격대회에는 트랩사격(날아가는 표적을향해 쏘아 맞추는 사격)만하였다.

공식적으로 트랩 사격은 실탄 100발을 사용해야 하나 대회 경기운영상 50발만 사용하는 변칙경기가되었다.

이번 대회의 챔피온은원종필(맹인후원회장)씨로50점 만점에 49점을 얻어 좋은 성적을 올렸으나 다른 참가자들은 예상밖의 저조한 기록을 냈다.

대회후 가진 간담회에서 동협회는 산하에 사냥클럽을 조직하기로 결정하고, 사냥 전반에걸친 정보교환을 활발히 하기로 합의했다.

동협회는 현재 70명의회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사격에 관심있는 교포는 누구나 회원으로 환영하고있다. 회비는 일년에 20달러.

동협회 한회정 부회장은 캐나다는 총기구입이 쉬워 누구나 마음만 있으면 사격을 배울수 있다고 말하고, 사격은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므로 교민들에게꼭 추천하고싶은 스포츠라고 덧붙였다.

한부회장은 또 교포청소년사격인구 확보를 위해사격협회는 노력하고 있다고 부모들의 각별한 배려와협조를 부탁했다.

이날 사격대회의 성적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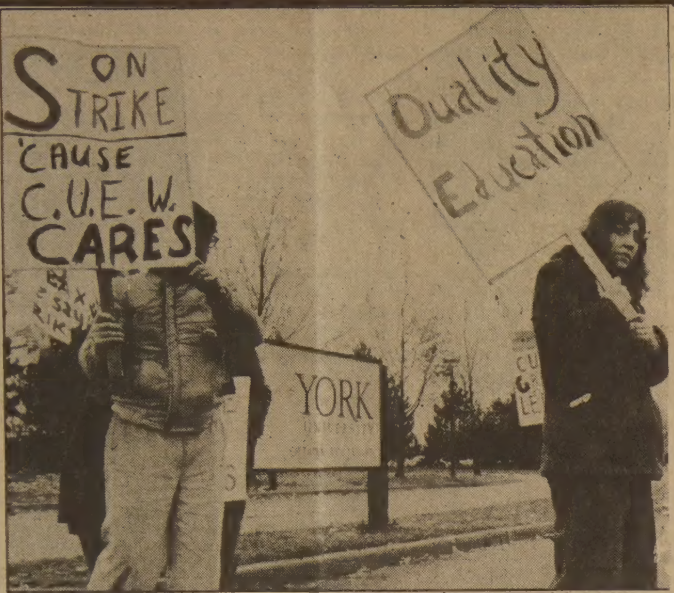
◆대회 챔피온 원종필

◆AA조 1등 한회정
2등 조기연
3등 백경락

◆A 조 1등 김이열
2등 소영후
3등 송병현

◆B 조 1등 이인섭
2등 송병조
3등 안규정

◆C 조 1등 장영채
2등 박광철
3등 강철용



◇욕대학 입구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피켓라인을 들은 강사들과 조교들

욕대학 강사 파업

야간반 수업중단

욕대학교 야간대학 아킨슨칼리지의 약 9,200명 학생들이 강사및 조교들의파업으로 수업을 못받고 150~330개의 강의가 취소됐다.

조교들과 강사들은 25일 학교측과의 협상이 결렬되자 26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TTC운전사들과 우편배달부들은 대학노조 원들의 피켓라인을 존중, 대학캠퍼스안으로 들어가는것을 거부했다.

이때문에 약2만명의 버스이용 학생들과 직원들은 큰 불편을 당했고 우편물소통이 더욱 혼잡해졌다.

교수들은 계속출근, 주간반의 학생들은 수업에 지장이 없다.

캐나다교육노조소속인 이들 750여명의 파업 강사들과 조교들은 적은 크래스와 20~100%의 봉급인상을 주장하나 학교측은 평균 12%선의 인상만 고집하고있다.

현재 강사들은 한학기(9월~4월)에 코스당 1,440~1,660달러를 받는다.

이자율 하락 기대난 1~2년간은 20% 선

주택모기지 이자율이 더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몬트리얼은행 W.D.멀홀랜드 회장이 경고했다.

23일밤 토론토 하버·캐슬 호텔에 모인 1,200명 공인회계사(CA)들에 대한 연설에서 멀홀랜드 회장은 "이자율이 앞으로 1~2년새 현재의 20% 이하로 하락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로열은행은 모기지담당 "옴버즈맨"으로 데니스·월더씨를 임명했다.

월더씨는 온타리오 주의 주택소유자중 모기지 지불이 체납되어 차압상태에 있는 자, 또는 모기지갱신기일을 당했으나 갱신이 어려운 자등을 심사, 정상을 참작해 주는 역할을 한다.

그의 전화번호는 (416)865-5182이다. 대체적으로 금융계에서는 이자율이 더 하락하지 않는다고 보고있다.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상점보험

B) 497-3800
R) 284-9052

교회는 사회정의에 앞장서야

인종차별등에 과감한 도전 역설

교회는 인종차별 주의에 대한 해결을 제공하나, 문제의 실상에 무지하다고 24일 토론토 온타리오교육연구원에서 열린 인종관계와 교회에 관한 대회에서 미국 흑인민권운동기구 조셉·로웨리회장이 말했다.

"인종차별주의는 사회정의와 나란히 간다. 사회정의는 교회의 우선적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요즘 교회는 자체보호에만급급하여 이 문제에 소극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로웨리회장은 현 교회의 태도에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흑인 민권운동가마틴·루터·킹 목사가 처음 이끈「남부 크리스천지도자대회(Southern Christian Leadership Conference)」의 창설자중의 하나다.

"교회는 가난한 자들의 요구에 외면하고, 하나님 자녀들의 생명을 질식시키는 시스템(구조, 제도) 에 과감히 도전하여야 한다"고 말한 로웨리 회장은"교회는 소수민족의 권리를 위해 위험과 곤란을 무릅쓰고라도 싸워야 한다"고 강조, "교회는 험난한 물위의 다리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다리는 건너져야 한다"고 덧붙었다.

미국의 인종차별 주의는 이제 그 극에 달했다고 말하는 로웨리 회장은 경찰의 비인도적 처사, 쿠·클룩스·클란(Ku Klux Klan)과 같은 백인우월주의 집단들의 횡포등은 사회의 극도의 무관심주의를 반영하는 것으로 그는 오늘날과 같은 악랄한 인종차별주의는 보지 못했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현사회는 어딘가 구조적 잘못이 있다. 가난한자는 훔치면 감옥에 가나 부자는 똑같은 짓을 하고도 책을 쓰며, 샌·클레망 같은 휴양지에 가서 유유자적하게 즐긴다" 면서 분개했다.

그는 또 "레이건 행정부 밑에서는 보습이 칼로 둔갑하고 있다"고 현 미국정부의 정책을 꼬집었다.

문선명씨 재판에 한국인들 반응냉담

〈서울23일 〉 통일교 창시자 문선명목사가 탈세혐의로 미법원에서 심리를 받았다는 소식에 대해 한국사람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학살시체 6만6천구 캄보디아서 새로발견

〈방콕- 〉캄보디아의전 크메르 루즈정권에 의해 대량학살당한 6만6천여명의 시체가 타케오, 캄포트, 칸달등 3개 국경지역에서 발견됐다고 캄보디아통신이 보도했다.

3개지역은 73년부터 78년까지 크메르 루즈 통제하에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폴포트의 크메르 루즈정권이 양민을 대량학살한 것으로 보인다고 캄보디아 통신이 보도했다.

社告

이전파티에의 초대

저희 〈한국일보-토론토〉사는 지난 5월1일 사옥을 이전했읍니다만 아직 교민 여러분을 새 사옥에 모시는 기회를 마련치 못했읍니다.

이에 따라 본사는 해가 바뀌기 전에, 또 세모(歲暮)의 어수선함이 다가오기 전에 평소 좋은 말씀 주시고, 물심양면 도움주신 필자, 독자, 광고주, 선후배 제현을 잠시 모시는 기회를 마련키로 했읍니다.

분망하신 가운데라도 일차 찾아주시면 큰 영광으로 생각하겠읍니다.

때 : 1981년11월14일(토) 하오2시~하오7시
곳 : 본사 1025 DUPONT ST. TORONTO
(도버코트·로드 서쪽)
전화 : 533-2361

※개별적으로 초청장을 드리지 못하오니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일보 —

토론토 쇼핑의 전당
미도파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데일리·세이빙 시작

한인신용조합 확장이전

지난 20일로 창설 5주년을 맞는 토론토의 한인신용조합(이사장 한상훈) 은 업무량 증가에 따라 현위치보다 약200미터 동쪽의 넓고 밝은 건물로 11월1일 이전, 2일부터 업무를 재개한다.

식당 한국관 건너편 건물 2층(641A Bloor St.W)으로 이전함과 동시, 같은 날부터 데일리·세이빙(매일 이자 붙음)을 시작하는 동신용조합의 현재 자산규모는 약 150만달러에 달한다.

동신용조합은 내년부터는 업무종목을 더욱 확대, 체킹어카운트를 실시할 예정으로 전해지고 있다.

85개국중 겨우 39등 금년도 캐나다경제

(오타와)유럽금융계는금년도 캐나다의 경제상태를 세계85개국중 39번째로평가했다.

세계금융시장에 관한 잡지「유로머니(Euromoney)」가 내린 이 평가는 트루도수상이나 메케켄 연방재무장관이 보는 캐나다의「우수한 경제」주장과는 너무나 상반된다.

지난7년간 종합경제상태는 30등이었다. 1등은 타이완(대만), 다음은 싱가폴, 홍콩, 사우디·아라비아의순이었다. 일본은 10등, 미국은 25등, 꼴등은 알젠티나.

수재의연금 기탁 서울대농대동창회

캐나다서울대학교농대동창회(회장 신동운)는 자체모금한 모국수재민 의연금 175달러를 한국재해대책위원회로 전해달라고 본사에 보내왔다.

본사는 이를 서울본사로 송금, 전달을 의뢰했다.

초봉 $1,800

간호원들 봉급 크게올라

온타리오주 간호원들의 봉급이 2년간 30% 가 오른다.

임금중재관 도널드·오시아씨가 내린 이같은 기록적인 인상계획서는 온타리오내 132개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2만5천명의 공인간호원(RN)에 적용된다.

토론토에는 20개의 종합병원이 있다.

온타리오 간호원들은 80년9월30일부터 고용주인 병원측과의 집단 노사계약이 없었기 때문에 새 계획서는 작년도로 소급, 적용된다.

새 봉급규정에 따른 간호원들의 초봉과 첫 근무시기는 다음과 같다.

신규 채용자가 아닌 간호원들의 봉급은 신규채용자 초봉에 준해 증가한다.

(괄호안은 전 계약에 의한 임금.)

80년10월1일	$1,590 ($1,450)
81년 4 월1일	1,650
81년10월1일	1,820
82년 4 월1일	1,900

82년 4 월1일 현재 7년경력의 간호원 봉급은 2,165 달러(종전 1,675달러) 가 된다.

전통적으로 온타리오 간호원 봉급은 브리티쉬·콜럼비아주보다 약 5% 가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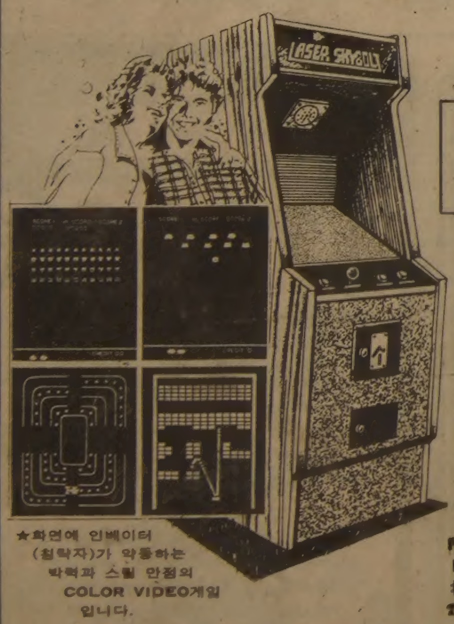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 믿고 살 수 있는
「로렉스지정판매 대리점」
(B) 534-9977, (R) 424-2599
635 BLOOR ST.W. (한국관 앞)

◇다저스와 양키스 월드시리즈 1차전에서 양키스의 3루수 그렉·네틀스가 몸을 날려 볼을 잡고 있다. 다저스는 25일 5차전을 이겨 시리즈전적 3승2패로, 리드하고 있어 우승의 문턱에 다가섰다.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M & J INTERNATIONAL
IMPORTER & EXPORTER & DISTRIBUTER, VIDEO GAME & PIN BALL WHOLESALE LEASE RENT



★화면에 인베이터 (침략자)가 약동하는 박력과 스릴 만점의 COLOR VIDEO게임 입니다.

➳취급품목 :
SCRAMBLE, DONKY KONG, CRUSH ROLLER, SPACE PANIC, CRAZY CLIMBER, HUNGRY MAN외 New 50ITEMS

"3개월이면 투자액을 건질 수 있는 수익성의 사업입니다"

본사는 미국 아폴로우주계획에 의해 고도로 발달된 전자기술의 산물인 I.C.(직접회로)와 DIGITAL(디지탈)기술로 T.V. 화면을 이용한 새로운 발상의 과학적인 T.V. 오락기구를 개발하고 이곳 캐나다에도 수출을 단행, 신뢰받는 기계, 철저한 아프터 서비스로 여러분의 가게나 음식점등 새로운 비지니스로 자신있게 권해드릴 수 있읍니다. 또한 이 기계는 마이크로 컴퓨터로 엄격한 관리하에 생산되였기 때문에 정확하며 간단한 조작법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며 현재「도꾜」를 중심으로 약12만대가 보급되고 있는 수익성의 사업입니다.

— YU JIN TRADES CORPORATIN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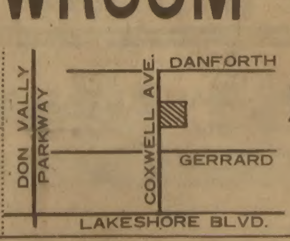
M & J INTERNATIONAL
1230 SHEPPARD AVE. W.
#15, DOWNSVIEW, ONT. M3K 1Z9
☎ : 630-0313 대 표 : 양 은 백

☎ : DAY : 630-0313
NIGHT : 429-1057

후 원 : YU JIN TRADES CORPORATION (KOREA)
G. G. I (CORPORATION(JAPAN)

X-MAS SHOWROOM

ROLLS & DARLINGTON
419 COXWELL AVE.
TORONTO,
TEL. 461-3555



버라이어티 스토아를 위해 우리는 가장 많은 장난감, 선물, 크리스마스카드, 장식용, 아동용 모델등 많은 물건을 준비했읍니다.

CASH & CARRY 또는
1월1일에 지불 할 수 있게 크레딧을 줍니다.

크리스마스 진열룸
매주 : 일요일 오전9시~12시
목요일 오후6시~오후9시
12월까지

전화연락 또는 약속 : 461-3555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제5계절 복합문화주의사회

안토니오·코레아

필자소개 : 이탈리아가 낳은 시인 안토니오·코레아— 일찌기 임진왜란때 볼모로 일본에 끌려간 한국소년 「안토니오·코레아」가 이탈리아로 이민(유학)한 그 먼 후예로서 현재 토론토의 센·클레아·웨스트에서 아파트 관리인으로 있다. 그는 시집도 냈고, 음반(낭송시 수록)도 냈다.

복합문화주의 사회란 무엇인가?

왜 존재해야 하는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가?

복합문화주의로 주류민족 그룹(Majority)이 무시되고 있지는 않는가?

혹은 복합문화주의는 실제적으로 이민자들에게 논리적, 자연적, 정신적 차원에서 필요의 대상이 되고 있는가?

복합문화주의 사회란 다른 문화적 차원의 사람들끼리 동일한 법 속에서 서로 다른 차원의 문화를 교류하면서 사는 것이다.

위에서 물은 바와 같이 한 사회의 근본인 성격이나 시스템의 그 사회 발전에의 기여도를 묻는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다.

지상이나 방송을 통해 논의되고 있으나 복합문화주의가 공통된 견해를 갖지 못하며 때로는 논쟁을 불러 일으키기도 한다.

먼저 작은 비유를 들어 우리의 경우를 이야기해보자.

만약 한 나무를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려면 적어도 그 나무에 맞는 토양, 수분상태, 빛등이 고려돼야 한다.

이러한 요구들만 충족되면 배양은 쉽게 이루어 질 수 있다. 그러나 배양한 것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이 끝났다고는 볼 수 없다. 그 나무가 자라기까지 계속적인 주의와 보살핌이 필요하다.

거름이나 비료를 준다거나 적당한 물과 알맞는 온도등의 일들을 제공해야 한다.

우리는 온갖 정성과 매만짐으로만 그 나무를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게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 나무가 사막이나 열대지방에서 자란 것이었다면 북쪽지방에서는 자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면 많은 종류의 나무를 다른 종류의 토양에 심는다고 가정해 보자.

이일을 처음것에 비교하면 얼마나 어렵고 사람을 어지럽게 만드는 일인가!

많은 정력과 시간, 그리고 자원과 편달이 있을수록 이들 나무들의 생존 가능성은 확실해지게 된다.

이러한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만 나무들은 건강하고 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 어떤 나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 시들어 버릴지도 모른다.

나무를 이양하는 문제를 우리 이민자의 경우에 비추어볼 수 있다. 우리는 사람이기에 나무들이 이양할 때 갖는 문제점 보다도 더 많은 골칫거리를 안고 있으며, 그에 따르는 더많은 문제해결책을 요구하게 된다.

이민자들은 개개인의 특별한 사회환경 조건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는 심각한 개인적인 영역의 문제임과 동시에 아주 조심스러운 투쟁이면서 모험이기도 하다.

이민자들은 이곳에 신조나 풍습·문화·그리고 여러가지 다른 배경을 가지고 왔다. 나무들과는 달리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것은 물질적인 충족뿐 아니라, 정신적 혹은 영적인 차원의 것까지 달하고 있다.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서로 다른 문화배경 속에서 성격과 정신구조를 이미 성장시킨 후에 이곳에 왔다. 어떤 이민자는 젊은 시절에 필요에 못이겨 이곳에 왔고, 또 어떤이는 모험하는 기분으로 왔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의, 평등 그리고 자유를 찾고자 이땅에 왔으며, 이땅은 모두에게 자립정신과 따뜻한 가정을 이룩하기 위한 필요요구를 충족시켜주고, 더 나아가 모두에게 자신을 존중할 수 있는 평등한 가능성, 곧 인간 존엄성을 인정해 준다는 이유에서이다.

캐나다는 거대하고 아름답고 활기있는 나라이다. 모두가 갖고자 하는 일거리와 자유·평등, 그리고 정의를 토대로한 성공적 토착 가능성이 충분하다.

우리는 세계여러 구석구석에서 새 삶을 같이 누리고자 이땅에 왔으며, 새로운 문화, 풍습 그리고 법을 배우며 지켜나가려고 하고 있다. 이제부터 우리의 문제는 어떻게 이 새땅(캐나다)의 문화·사상을 소수민족으로서 소화해 나가며, 동화해갈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우선 새로운 생각과 개념을 흡수키 위해서는 우리의 과거를 버리고 때에 따라 180도 전환해야 한다.

이땅에 먼저 정착했던 캐나디안 역시 이민자들의 여러 문화를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보러 아프리카인·포투기스·한국인·이탈리아인·인디언·중국인 등등의 사상과 생활 방식을 따르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그렇기에 이민자들도 캐나다의 생활풍습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동시에 다른 배경의 이민자들을 이해하고 존경해야 한다.

이와 같이 다른문화와민족들사이에 사는 일은 아주 힘들고, 때때로 불가능해 보이기도 한다.

우리 모두는 이곳에 얼마를 살았든지, 우리 각자의 문화유산을 그대로 보유하고 키워간다는 점에서는 다 동의할 것이다. 캐나다정부도 이러한 권리를 인정한다는 뜻에서 복합문화주의 사회 정책을 내 세운다. 많은 사회학자와 전문가들이 이러한 우리의 사회모습을 연구 분석해 왔다.

어떤 이민자들은 이 새 사회에 빨리 흡수되는가하면, 어떤 이들은 긴세월을 또는 수 세대를 내려가야 비로소 동화되기도 한다.

금년은 우리가 서로 같이 힘써 일해온 복합문화주의가 10돌을 맞는 해이다. 그러나 기쁜일은 대부분의 우리 이민자들이 아주 열심히 이 일을 위해 힘써왔고, 소수의 캐나다인들도 이일을 계속 추진해 주었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의 노력과 정부의 도움으로 복합문화주의 사회는 계속 자라고 있다. 나무들이 자랄 때 도움을 받는 것처럼 주정부와 연방정부는 우리의 사회의 성장을 위해 애쓸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사회는 우리의 손으로 키워야 한다.

그러기에 우리를 밀어주고 우리를 위해 일하려는 인본주의 정신을 가진 사람을 정부나 이 사회에서는 필요로 한다.

이 복합문화주의를 추진하는 사람들은 긍정적인사고방식을 가진 자들로 인간의 역사속에서 이뤄본 일이 없는 일을 창조하려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복합문화주의 사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모든 비관적인 사관이나 자익, 편견등을 버려야 하겠다. 흔히들 "조국을 떠난지 5년이상된 사람들은 자신들의 옛 조국이나 이민온 나라의 불필요한 존재들이 되고 만다"고 말한다. 일부 이민자들은 실제로 불필요한 존재의 구실을 하고 있으나 극히 소수에 불과할 것이며, 대부분의 이민자들이 매우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민자들은 조국을 영예 스럽게 생각하며, 또한 캐나다를 더욱더 사랑하고 있는데, 누가 이들을 불필요한 존재라고 규탄할 수 있는가? 나는 캐나다안에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는데, 곧 복합문화주의 사회의꿈이 실체화되는 것이다.

캐나다는 지혜롭고 건설적이며 보다 높은 차원의 생각을 가진 자손들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복합문화주의 사회를 성취함으로 우리자신과 세계 모든이에게 우리의 업적을 보여주어야 한다. 현재의 캐나다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더욱 나은 미래를 지니게 된 것은 모두가 힘써 일해왔기 때문이다. 우리 이민자들은 우리의 하찮은 문제점, 어려움등을 극복, 공동목표를 향해 함께 일해야 한다. 이겨 나가야 한다.

이러한 우리의 공동목표인 훌륭한 복합문화주의는 훗날 우리들중 누가 어디서 살든지간에 끝까지 우리의 자랑거리이며, 더 먼 훗날 우리의 자손이 어디에서 살든지간에 이 사회가 따뜻하고 안정감 있는 사회라고 자랑할 수 있을 것이다.

교민동정

◆백경락(사격협회장)=금년도 사업을 마무리짓는 제4회 사격선수권대회를 지난 24일 개인천 4개그룹, 단체전, 주니어부로 나누어 실시했다.

◆김홍량(한맘신용조합장)=약 150만달러로 조합기금을 늘린데 이어, 적금제도를 실시, 어린이적금·휴가적금·성지순례적금·피아노적금·희망적금·사업적금의 6종류 월부납입을 곧 시작한다고.

〈수 상〉 낙서(落書)·2 (상)

홍 기 만 문협회원

한국의 초겨울은 김장철과함께 다가온다.

김치는 한국미각(味覺)의 전통이며,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을 상징한다고도 할수있다. 그러기에 김치와 깍두기는 바로 한국의 맛이며, 한국의맛은 김치와 깍두기에서 비롯된다고 도 할수 있다.

아무리 성대하게 차려놓은 식탁이라 할지라도 김치나 깍두기가 빠졌거나제맛을 내지못하면 의례 미각의 허전함을 느끼게 마련인것이 우리 한국인이다.

우리네 선조는 겨울용야채류 보존법의 하나로 김치라는 특유한 음식을 마련하는 슬기로움이 있었다. 우리는 그 슬기로움을 자랑하고 싶은 것이다. 옛유럽에서는 채소류 섭취결핍증으로부터 오는 괴혈병이 심했고, 그 사망률도 높았다는 기록이 있으니 말이다.

지금쯤 고국에서는 김장이야기가 한창일 무렵이다. 김장감 수확이 평년작을하회하거나 흉년이면 무척이나 서민들의 애를 태우는 것이 또한 김장철이기도하다.

시인 정지용은 깔끔한개성음식과 더불어 그 고장 김치를 으뜸으로 꼽았었지만 서북지방의 김치역시그 풍취나 맛에있어서 우리의 미각을 사로잡기에 족하다.

하지만 이러한 지방마다의 특유한 맛이나 멋은 무너져 버린지 오래다. 일일생활권이라는 고국의 근대화에 밀려 김치와 깍두기의 맛은 서울에서나 부산에서나 각별한 맛의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 마치뉴욕의 햄버거 맛이나 로스엔젤스의 햄버거맛이 조금도 다를바 없는것처럼.

「사르트르」의"풍족함은 있어도 풍요함은 없는것이 미국"이라고 미국문명을비판한 글이 생각난다. 미국은 모든물품이 풍족하다그러나 지방마다의 특유한맛이나 멋이없는것이 미국이란 뜻인 모양이다. 이에 비하면 프랑스에서는 지방마다 간직하고 보존하는 특산물의 특유한 맛과멋의풍요함이 있음을 미국과 비교했는지도 모른다.

이민이후 김장철이라는 계절적 감각을 상실해 버린지 이미 오래고, 아예 김장이라는것 마저 잊어버린지 오래인 지금 당돌하게도 김장철에대한 실없는낙서를 끄적이고 있는 것은 다만 먼 고국에의 향수때문만은 아니다.

세상은 항시 변천하기마련이고, 따라서 세정(世情)도 많이 변해가고 있으며, 시사용어를 빌리면「급변하는 세계」속에 인간의 습성은 눈에 뜨이도록 변해가고 있는것이다.

그토록 한국인의 사랑과 아낌을 받으며 항상 우리네 식탁에 올라앉는 김치가 급변하는 세계속에 숱한 일화와 말썽을 빚고 있는것이다.

「세계의 그로테스크 음식」목록에 김치가 끼어 있는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다. 설명에 의하면 김치맛을 익히려면약 20년이란 세월이 걸린다는것, 비슷한 말이다. 내가 김치의 진미(眞味)를 익힌 것은철이드는 20세 전후였다고기억되니까. 우리 미각의 전통이며, 한국인과 함께 생활하는 김치가 외국인의눈에는 그로테스크하게 비친다는것. 하지만 이것은 그네들만을 나무랄 문제는아닌성 싶다.

언제인가 토론토교포지 H신문에 특호활자로 표제를 뽑았던 재미교포의「김치재판」기사를 쉽사리 나의 뇌리에서 지울수 없었던것은 내가 한국인이기때문인 것이다. 범죄란 범인자신의 신상문제로 끝나기 마련이지만「김치재판」은범죄와는 전혀다른 별개의성격을 내포하고 있는것이다. 그것은 무지에서오는 아집과 양식의 문제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법을 따르랬다는 속담을 생활에 적용시키라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자기 스스로를 가끔은 돌아볼줄 알고, 조금쯤은 생각할수 있는「한국인」이었다면 그러한 수모는면할수 있었을 것이다.

이민 햇수가 거듭됨에따라 김치가 빚어내는 이야기를 차츰 잊어버리고있던 요즘 갑작스레 캐나다사람으로부터 김치이야기를 들었다. 새삼 잠을깨는 느낌이었다. 혼자 고소(苦笑)를 금할수 없었다. 엉뚱하게도「김치바베큐」란 말이 튀어나왔으니 말이다.

휴가중이었던 나는<토론토스타>신문사 빌딩에서상점을 경영하고있는 아내를 만나러 갔었다.

커튼은 활짝 걷혀있었고, 투명한 유리창을 통해비쳐드는 맑은 오후의 햇살은 난방장치 때문인지 한결따스하게 피부에 와 닿았다.

(계속)

지금까지의 인류인구 5백억명
예수탄생때 벌써 2억명 살아

"현재 지구상에 생존한 인간의 수는 지금까지 죽은 모든 인간의 합계보다 많다?"

"노(No)."

미국 매사추세츠주 암허스트 소재 햄서대학교 사회생태학교수이며 자연과학대학장인 아더·웨스팅 박사는 지금까지 지구상에 살았던 인간은 모두 500억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인구는 약44억이다.

따라서 현 인구는 30만년에 걸쳐 지구상에 살은 모든 인간(Homo Sapiens)의 9%에 불과하다.

농경·사냥시대 이전의 구석기시대는 인류가 지구에 서식한 전 기간의 86%를 차지하지만 현재 인구는 구석기시대를 통틀어 생존했던 인류보다 많다.

웨스팅박사는 이에 관한 다른 3명의 학자 계산은 그들이 인류 서식시기를 잘못 잡았고 인간 수명을 잘못 계산,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60년 E.S. 디비 박사는 1950년까지 산 인간의 수를 1,110억명으로 계산했다. 디비박사는 1백만년전 인구를 12만5천명으로 추산했다. 이것은 인류 이전의 직립원인(똑바로 서는 원숭이인간)까지를 포함한 것이었다.

다른 한 계산은 인류 수를 690~710억명으로 추산했다. 이 계산은 인류등장 이전의 가설적인 시대를 계산의 시발점으로 잡았다.

이들의 계산은 인간의 수명을 25년 또는 16~25년으로 가정했다.

이에 반해서 웨스팅박사는 8개의 기본적 시점을 추출하고 한 시점에서 다음 시점까지의 인류수를 산수학적이 아니라 기하학적으로 계산했다.

수명은 초기 인간을 20년, 근세인간은 50세로 잡고 점증하는 것으로 계산했다.

그는 영국의 인류학자 버나드·캠벨의 주장대로 기원전(B.C.) 29만8천 년을 인류의 출현시기로 가정, 이때의 남녀 2명이 자손을 나아 구석기시대 25만8천 년간의 총 인류수는 27억명이었다고 밝혔다.

웨스팅박사는 그후 인구 증가율이 크게 변화한 7개 시점으로 인류수를 계산했다.

예를 들어 중석기시대인 기원전 4만년의 인구는 3백만명이었고 농경시대가 시작되는 기원전 8천 년에는 5백만명이었다 (토론토 인구의 약2배반).

예수 탄생 때(서기원년)의 인구는 2억명이었다(현 캐나다 인구의 9배). 이 숫자는 많은 학자들이 이미 주장한 숫자와 거의 같아 웨스팅박사의 계산은 가장 정확한 것으로 평가된다.

르네상스 이후 계몽주의 시대로 돌입하는 1650년의 인구는 5억, 산업혁명이 시작된 1850년 인구는 10억, 2차대전이 끝나고 원자력 시대가 시작된 1945년의인구는 23억명이었다.

기원전(BC) 8천년부터의 인구증가표

낮은 코를 높게 한다
美서 활모양 器具 개발
코속에 받쳐 놓게 考案
한개 30달러…日서 크게 人氣

얼굴의 중앙에있는 코는 미·추를 좌우하는 매력의 포인트—. 납작코를 우뚝코로 만들면서 얼굴전체의 윤곽을 예쁘게 해주는 새로운「기구」를 개발, 호사가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국의 플로리다에 있는 플래스틱 제조회사인 랜들·하워드사가 고안해낸것으로 제품명은 「프리티·노우즈」(예쁜코)—.

다름아닌 플래스틱 제품으로 개당 가격은 30달러선. 정형··술비가 1천달러꼴이 드는 실정이고 보니 선풍적인 인기 상품으로 일대 유행이 되고있다. 지난1월 뉴욕에 첫선을 보인 이후 어느새 일본에도 상륙, 미국과 일본에서 날개돋친듯 팔려 나가는 것이다.

일본에선 일부 화장품점과 미용원이 공급원일때 고객은 탤런트등의 예능인과 모델, 호스티스등이 대부분—.

기구라야 탄력성 있는 흑색 플래스틱을 활모양으로 굽어지게 만들어 놓은데 불과하다.

크기는 길이가 2.45센티미터(1호)에서 5센티미터(8호)까지. 일본에 수입된것은 1호와 3.3센티미터인 3호까지다. 애용하는 일본여성의 85%는 1호를, 3호는 우뚝코를 과시하고 싶은 남성들이 즐겨 찾는다고.

사용은 자기에게 알맞은 크기를 코구멍속에 넣어 우뚝하게 보이게끔 앞쪽으로 버텨있게 하면된다. 처음엔 이물감을 느끼지만 며칠만 지나면 잊어버릴 정도란다. 습관화되면 잠잘때와 과격한 운동을 할때를 제외하고는 그대로 코속에 넣고 다니는 것이다.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HWANG

도넛샵 :
①주매상 $6,500, 렌트 $3,000, 5년+15년 옵션 가격 : $26만 달러
②주매상 $5,500, 렌트 $2,300, 3년+10년 옵션 가격 : 18만9천
③주매상 $4,500, 렌트 $1,060, 8년+10년 옵션 가격 : 18만5천

주유소및 가게
①놀에이커 땅에 가옥포함, 코너땅에 도넛샵 자리로 최적, $8만 다운, 가격 : 30만달러
②년매상 60만달러이상, 2놀에이커땅에 가옥포함 년수입 : 8만달러, 8만달러 다운, 가격 : 35만달러

버라이어티 스토아 :
주매상 : $5,500, 주매상 : $7,000,
주매상 : $8,000 되는 버라이어티스토아, 기타가게 달린집, MALL안에 있는 가게도 있음.

TOM HWANG REAL ESTATE LTD.
REALTOR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
TEL. (416) 449-8644, 8645(B), 286-1548(R) M3B 1Z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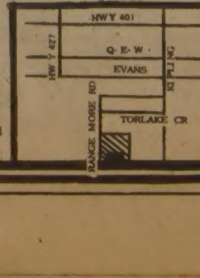
한국인의 도매상
(한인연합상사— 구 HIT도매상)
"소문없이 싸게팔며 봉사하는 도매상"

— CASH & CARRY에 한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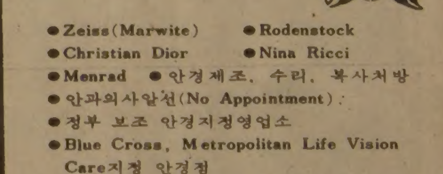
* Schneider Bacon	500g	2.09
* Schneider cooked ham		1.79
* Mini= sizzler		1.99
* Weiner	1 lb.	1.85
* Gift- chocolated box (Lowney)		
- Pot of gold		4.29
- All nut		5.19
- Marashino cherries		4.29
- Half & Half		4.29
- Ovation- mint stick		1.85
- Selection chocolate		2.55
- Almondillos		2.45

Cash & Carry고객의 편의를 도모코자 달걀, 양파, 감자는 준비했읍니다.

한 인 연 합 상 사
251-6578
U. K. L. CASH & CARRY
27 RANGEMORE DR., TORONTO M8Z 5H8



블루어안경



● Zeiss(Marwite) ● Rodenstock
● Christian Dior ● Nina Ricci
● Menrad ● 안경제조, 수리, 복사처방
● 안과의사알선(No Appointment)
● 정부 보조 안경지정영업소
● Blue Cross, Metropolitan Life Vision Care지정 안경점
● Stock렌즈는 당일 서비스 합니다.

※주2회 안과의사가 직접 내방하여 검진하오니 이 시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 오후1시부터~4시30분까지
토요일 : 오후1시부터~4시30분까지

영업시간 : 월~목·9 : 30AM~7AM
금·9 : 30AM~8PM
토·9 : 30AM~6PM

주 소 : 629 BLOOR ST. W. TOR.
전 화 : 531-2236(B), 282-2369(R)

世界 최고급차 벤츠

1885년 獨人 두사람이 만들어
墺 美女이름따「메르체데스·벤츠」
車体견고…경기용으로도 각광

사장이 되면 한번쯤은 갖고 싶어하는 세계적인 명차가 서독제 벤츠다. 완전한 이름은 메르체데스·벤츠. 이 차를 제작하는 메이커의 이름은 다이믈러·벤츠. 현대의 모든 개솔린 엔진을 단 자동차는 이회사가 원조다.

자동차를 발명한 독일사람 고트리브·다이믈와 칼·고츠라는 두사람은 지금으로부터 95년전인 1885년 최초로 개솔린엔진 즉 일정한 크기의 실린더라는 통속에서 기화된 액체연료가 전기스파크같은 불꽃에 의해 연소되면서 폭발할때 생기는 힘으로 기계가 작동되는 것이다. 두사람의 성을따서 세운 회사가 지금의 다이믈러—벤츠자동차회사다. 지금까지 가장 역사깊고 고도로 발달된 자동차제조기술을 가진 메이커로 전세계에 군림하고 있다.

이 벤츠사에서 생산되는 모든 종류의 승용차는 반드시 동근원속의 드리포인트 스타와 함께 메르체데스·벤츠라는 트레이드 마크로 전세계를 달린다. 이차의 뒷꽁무니에는 반드시 200 220 220D 250 250D 280 280D 300 300D 450SEL 600등의 숫자들이 붙어 있는 것을 볼수 있다. 이것이 바로 벤츠의 엔진성능과 가격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숫자들은 엔진의 배기량을 나타내는데 그 숫자에 10배를 하면 그차의 배기량이 된다. 이는곧 엔진마력의 강약을 표시하는것. 숫자가 많을수록 배기량도 크며 마력도 높다. 따라서 차의 가격이 비싸진다는 뜻이다. 숫자뒤에 영어인 D자가 붙은 것은 디젤차임을 나타낸것이다.

재벌급 인사들이 타고다니는 벤츠 600은 6000씨씨의 배기량에 250마력이상의 힘을 가진 차다. 차의 길이는 6.2미터로서 벤츠차중에서 최고급이며 영국의 롤즈 로이스나 미국의 캐딜랙 리무진과 더불어 세계3대 고급차로 유명하다.

벤츠차의 이름격인 메르체데스는 사실 오스트리아 상류사회의 어느 아름다운 처녀의 이름을 딴것. 1900년초 다이믈러가 만든 자동차들이 유럽의 상류사회와 자동차경기용으로 팔리기 시작할 무렵 프랑스남단의 아름다운 항구 니스에 오스트리아인 에밀·제링크라는 멋장이 자동차 레이서가 뛰어난 상술과 사교술로 상류사회에 자동차를 팔고 있었다.

당시 그는 오스트리아의 자작칭호까지 가지고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자동차경기때마다 큰영향력을 행사, 1897년이후 많은 다이믈러자동차를 팔아 왔다. 에밀·제링크는 다이믈러에게 특별히 모터카 레이스용으로 제작해 줄것을 부탁, 헝가리, 프랑스, 벨기에, 영국, 미국등에 대리점을 두고 판매고를 올렸다.

이차는 축간거리가 길되 차체는 낮게 만들어 35마력의 엔진을 부착한 새로운 스포츠카 였다.

그해 9월 이차를 시험한 결과 어느차보다 성능과 스피드가 우수했다.

차체가 견고했고 운전석도 쿠션이 훌륭했다. 그후 경기마다 최고시속 85~95킬로미터로 우승을 휩쓸었다.

제링크는 각국에 보낼 견본용으로 36대를 다이믈러에게 주문한후 선전을 위해 인상적인 명명을 붙이기로 작정했다.

어느날 14살먹은 자기딸 메르체데스와 니스의 어느 귀족이 베푼 사교파티에서 새로나온 그의 백색스포츠카를 타고 옆을 따라오며 「메르체데스, 당신이 탄 이멋있는 자동차를 당신처럼 부르고 싶소」라고 하는 말을 들은 제링크는 「이것이다」하며 무릎을 쳤다.

이렇게해서 제링크는 그후부터 유럽각나라에 메르체데스·다이믈러라는 이름을 트레이드마크로 붙여 팔았다.

이 메르체데스·다이믈러가 1900년초 유럽의 자동차레이스계에 대단한 인기를 얻어 많이 팔리자 에밀·제링크는 가족의 성까지도 제링크·메르체데스로 바꾸었다는 에피소드도 있다.

다이믈러와 같이 자동차를 발명한 칼·벤츠가 각각 자동차를 만들어 오다가 1908년 서로 합병한후부터 메르체데스·벤츠로 바꾸어 오늘날까지 벤츠사의 트레이드마크로 전세계에 퍼져가고 있다.

음주운전은 여러분의生命과 財産을 위협 합니다.

"북미의 25時를 지켜보는 한국일보는 휴식이 없읍니다"

◇작가 팔리·모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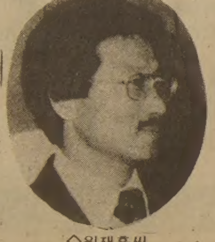
◇명작"사슴을…"의 막후애기◇

캐나다의 저명작가 팔리·모왓(Farley Mowat)의 베스트·셀러 실화소설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People of the Deer)》을 6월1일 일간으로의 발전을 계기로 시작, 지금까지 계속 연재하고 있다.

〈저자 소개〉

팔리·모왓씨는 바다와 육지, 북극에 살고 있는 여러 민족, 그들의 해학과 문화에 깊은 이해와 동정을 갖고 많은 저서를 낸 캐나다의 작가중 국제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사람중의 하나이다. (캐나다뉴스 5월23자, 27일자 참조) 그의 대표적 작품은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 〈절망적인 사람들(Deaperate People)〉, 〈죽이려고 한 고래(A Whale for the Kiling)〉등 여러권의 베스트셀러를 저술했다.

국립영화제작소가 제작한 영화 "팔리·모왓에 관한 연구(In Search of Farley Mowat)"가 상영됐고, 82년에는 기록영화「늑대야, 울지 마라」에 직접 출연할 예정임. 팔리·모왓은 올해 60세.


◇원재훈씨

〈번역자 소개〉

원재훈씨는 외대 스페인어과를 거쳐 68년 동국대 경영학과 졸업, 72년 캐나다이민, 자동차 세일즈 맨으로 오랫동안 활약했었고, 지금은 식품점〈고려식품〉을 맡아 경영중인 한인사회에 잘 알려진 인사.

〈매일연재 소설〉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 ㊽

팔리·모왓 원작, 원 재 훈 옮김

하루는 리틀힐스에서5사람의 이할미우트들이 우리를 방문하러 원디베이로내려왔다. 그때 일기가 매우 좋지않아서 그들의 여행은 3일이나 걸렸다. 이들은 총을 갖고오지 않았기 때문에 실탄도 없었다. 3일동안의 여로에서 그들은 도랑에서 손으로 잡은 작은 두마리의 쎄커로 요기를했다. 세상에서 정말 힘들은 60여마일을 걸어와서우리의 캠프까지 왔을때는완전히 녹초가 되었고, 굶주려 있었지만 아직 우리에게 음식을 요구하지는 않았다바로 구걸을 하는것은 점잖지 못하다고 했기 때문이다. 바렌에서는 아무도 음식을 구걸하지 않는다. 방문객은 어디를 가나 자동적으로 대접을 받게 된다. 그때 나는 좀 바쁜중이었다.

나는 건성으로 이 방문객들과 인사를 나누고 굶주린 다섯 사람이 꼭 참고 앉아 있는동안 하던일을 계속했다. 그때 오울릭툭이 캠프에서 강건너 뚝으로 사슴 한마리를 발견하고 방안에 있는 내 총을 집어들고 사슴을 잡으러 뛰어나갔다. 그가 나간지 한시간이 이미 지났는데도 돌아오지 않았고 벌써부터나는 내 총을 걱정하고 있었다. 생각없이 나는 화가치밀어 기다리고 있는 이할미우트 사람들에게 내 총을 당장 내놓으라고 고함을 질렀다. 이런 나의 행동은 믿을 수 없는 못된짓이었으며 역정을 냈다는 것은 어린애 같은 행동이었음에 틀림없었지만 그들은 되려 농담으로 받아넘겼다.

오텍은 걱정하지 말라고 웃으며 그들이 매우 시장하기 때문에 오울릭툭이 사슴을 잡기위해 내 총을 잠시 빌렸을 따름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는 그는 잘설명이 됐는 줄 알고 곧 명랑하게 험악한 날씨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내가 정답게 이야기할 기분이 없었으며 나자신도 험악한 날씨처럼 기분이 상해있었다. 왜냐하면 누군가 이 에스키모중에 내가 아끼는 총을 팔에 끼고 훌쩍 없어져 버릴려고한다면 나는 참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오울릭툭이 마침내 사슴고기를 총에 매달아 총을 질마대용으로 사용해서 어깨에 메고 돌아왔다. 총은 피에 범벅이 되어 버렸고 개머리판은 돌에 찧여서 긁혀버렸다. 오울릭 툭은 땅바닥에 짐을 내려놓고 사슴고기 중에 제일 맛있는 혓바닥과 갈비만 떼어 가지고 캐빈으로 들어왔다. 그는 총을' 문에 기대어 놓고 고기를 건네 주면서 즐거운듯이 웃었다.

그러자 나는 그에게 분통을 터트리고 말았다. 불쌍한 오울릭툭! 내가 그를 만나 서로 알게된 그이후 그는 나를 만나면 항상 불안해 했다.

그날이후 그는 내가 마치 놀리기만하면 당장 무서운 동물로 변하기라도 할것처럼 내 비위를 마추느라고 정신이 없었다. 그후 내가 저지른 나쁜인상을 지워 버리려고 무척 애를 썼지만 완전히 성공하지 못했다. 이제 내가 이런 사소한 일들을 이할미우트가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기억해볼때 내가 어째서 그들을 설득시키지 못했는가를 알수있을 것같다.. 이할미 우트는 나를 용서해 주었고 또 나의 이기주의적이며 어린아이 같은 감정표현 때문에 나를 나쁘게 판단하지도 않았다.

(계속)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0. yr. $8. mo. 구독료(선금)연 $90, 월$8, 영구구독 $500, ISSN03192962, 2nd Class Mail 5248.(416) 533-2361~4

O.K. Auto Body
Call 251-9889
Hee-Sam Kim Res. 242-4551

138 SIXTEENTH ST.
M8V 2K1
WE ACCEPT ALL INSURANCE WO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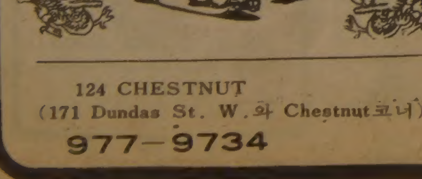
意安飯店
의 안 반 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4시까지 영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항상 신선한 럽스타, 게, 굴, 해삼, 전복등을 준비했읍니다.

영업시간 :
월~금 : 4 PM ~ 4 AM
토~일 : 12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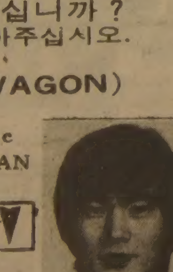
124 CHESTNUT
(171 Dundas St. W.와 Chestnut코너)
977-9734

Grant Brown

차가 필요하십니까?
이 한구를 찾아주십시오.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82년형 J-2000



잘 정비된 백여대의
Used Car들이 있읍니다.

1575 WESTON RD.,
WESTON, ONT
(B) 247-7161
(R) 977-2731

〈김용순 무용연구소 안내〉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께서 성원해 주심으로 본 김용순 무용연구소는 나날이 발전을 거듭하여 이제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조국문화의 올바른 이해및 자부심을 심어주고 또한 우리 자녀들의 많은 성장을 모국 국민들에게 보이기 위해 한국공연을 계획하고 무용단원 약간명을 모집합니다.

앞으로 더욱 사랑해 주시리라 믿으며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읍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연습시작 : 11월7일(첫토요일)

1982년도 계획
6월 : 제3회 무용발표회
7월 : 한국방문및 공연
12월 : 자선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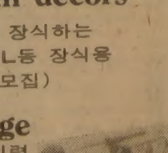
문의전화 : 751-8891(오후7시이후)

사 진

• **commercial photography**
기업의 성공은 적절한 광고로부터!
백마디 말보다 한장의 사진을!
(무료상담, 당분간 특별할인)

• **home, office wall decors**
쓸쓸한 벽을 아늑하게 장식하는
대소형 액자및 MURAL등 장식용
작품사진(위탁판매점 모집)

• **wedding coverage**
특수 효과를 살린 창의력
넘치는 사진을 캐나다
최대의 전문 LAB에
현상의뢰



• **VIDEO service**
칼라TV로 볼 수 있는 비데오 촬영!
비데오가 없으신 분도 빌려 볼 수
있읍니다. (단체행사및 결혼, 회갑,
돌등 가족행사)
(구 David's Photography)

무지개 칼라—
36 NEAPOLITAN DR. 438-4435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정력감퇴,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주말에 일할 여학생 캐쉬어 구함 :
스카보로 지역
☎ : 438－1528

웨이트레스 1명 구함
628 BLOOR ST. W.

봉재사 급구(고급 브라우스, 스카트, 바지)시간당 $4 이상
다림질 하실분 홈워커(고급양장), 고소득
292PARLIAMENT(DUNDAS에 가까움)☎ : 362－2300

토요학교 밴 운전하실분 구함 : 토론토 서쪽지역에
거주하는 분, PAY : $30(약4시간 소요)
☎ : 960－0074 씨알한국인학교

스토아에서 일할 남자헬퍼구함(주40시간 이상)
MAIN & GERRARD ST. 지역
☎ 691－3363

산후 조리 해주실 분 구함
다운타운 지역, 우대함
☎ : 923－4354

자수기계 OPERATER구함
경험있는 분은 월급이 많음
☎ : 769－4726

재봉사 구함 :
FINCH & DUFFERIN
☎ : 636－8348

"급 구"
① 윤전기및 인쇄용카메라 기술자
② 윤전기및 인쇄카메라 기술 배우실분
☎ : 533－2361. 미세스 김

경험있는 풀타임 남자헬퍼구함 :
미시사가 지역
☎ : 823－2445(R), 822－4895(B) 미스타 심

도너스 샾에서 일하실 파트타임 여자헬퍼구함 :
월~금 하오3시반~하오9시반, 토 상오8시~하오6시
☎ : 598－1140 (칼레지 써브웨이 안에 있음)

FULLTIME캐쉬어구함 :
경험있는 분에 한함, 학생도 가능
☎ : 625－1620. 미시사가 지역임

풀타임 남자 가게헬퍼구함
스카보로 지역
☎ : 284－6311(B), 284－8862(R)(오후4시이후)

버라이어티 스토어 헬퍼구함 : 단 유경험자에 한함,
저녁4시~8시반까지
☎ : 368－8147, 39 BELSHAW PLACE.

풀타임 또는 파타임 헬퍼구함 : FRUIT MARKET
744 DUNDAS W. (Dundas×Bathurst)
☎ : 368－8077, 491－3623(밤9시이후) MS. LEE

GAS ATTENDANT구함
☎ : 782－6311

셔니일이나
자수하실 분 구함
☎ : 244－1635

※안내광고는 선불을 원칙으로 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매매및 양도

74년형 BUIKE : 뉴페인팅, 보증서있음
A－1 CONDITION.
☎ : 759－3923

핀볼 기계와 비데오 게임 : 액셀런트 비즈네스 매매
☎ : 767－7998, 762－5455 OR 245－5544
PAGER #4701

좋은지역에 위치한 바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가정형편상 급매코자 함)
주매상 : $3500~4000 리스 : 4년
ASKING : 29000+스탁(좋은 OFFER를 줌)
주소 : 1430 DUNDAS W.
☎ : 531－0773 Mr.김 (직접내방바람)

스토아달린 빌딩 팝니다.
☎ : 653－4633
Mrs.코메스

몬트리얼이나 유럽에 있는 빌딩이나 회사를 사는데
투자하시기를 원하시면 연락바랍니다.
4521 PARK AVE. SUITE 320, MONTREAL, P. Q.
MONTREAL MANAGEMENT SERVICES Co.
☎ : 849－0959, 7374~6

77년형 폰티악 밴트럭 :
5만 마일, 3천5백달러, 6기통
☎ : 248－5472

아파트먼트 싸이즈 맞는 피아노 팝니다 :
$1,500
☎ : 783－6871(낮), 636－1430(저녁)

KNOB FARM(러빌 팜)안에 있는 가게
세놓습니다.
☎ : 278－3975 270－7072(6시이후)

A. M. F. M. 카셀(자동차) $85부터
CITY AUTO RADIO SALES SERVICE INSTALLATION
102 TURBINE DR. WESTON, ☎ : 743－5669

도나스 샾 매매 : 이윤 좋고 매우 전망이 좋은 곳에 위치
시간짧음 (주6일 열음, 하루 11시간 영업)
관심 있는분은 직접 내방요함.55 KENSINGTON AVE. Tor

성업중인 몬트리올에 위치한 그로서리
(맥주와 포도주 취급) 스토아를 급매코자함
주매상 : 5천3백달러이상 보장, 권리금 : 4만5천
+스탁(만달러 정도), 현금 : 2만5천
☎ : (514) 486－0944
(95% 영어지역)

매매 ●도나스 캐비넷 셋트
●성업중인 햄버거 레스트랑15년 리스
☎ 535－2804 미세스 김

74년형 닷지 1 밴트럭 팝니다.
성능이 우수함
☎ : 248－4578 미스타 홍

T. V. 스테레오 취급전문 : 연매상 45만달러
아스킹 : $7만+스탁
☎ 533－2400 미스타 김

DRY CLEARNING PLANT FOR SALE
2 STORES GOOD INCOME
☎ : 922－2241(ROSEDALE AREA)

메뉴펙츄얼 재고정리 세일 :
자꾸, 단추, 합사, 씽글바늘재봉틀, 아이들 겉옷들.
148 AUGUSTA AVE. 2층
☎ : 366－5439

T. V. & STEREO BUSINESS FOR SALE
●HIGH PROFIT; ●고급물품 전문메이커 취급,
TRAINING시킴, ●PREMIUM LOCATION.
●VIDEO TAPE MACHINE BUSINESS전망,
●ASK. MR전, MR. 친 ☎ : 745－5555

성업중인 햄버거 샾 팝니다
☎ 530－0748 DAVID

아 십 니 까?
안내광고란의 위력을….

집·방세·하숙

방세놓습니다 : 1 베드룸(살림할수있음)
BLOOR ST. W. 중심가
☎ : 533－0168(PM1시~PM9시) 미스타 김

인 쇄

LEE'S 프린팅 최고의 품질 저렴한 가격
2157A WESTON RD. WESTON. ☎ : 244－2301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진 표

미 용

소 니 아 미 용 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Q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스 타 미 용 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헬 렌 미 용 실 미세스 리
377 ALBION RD. REXDALE (B) 741－7829, 742－8731
한국식품서부지점에서 동쪽2번째 시그날에서 내리면 됨

킴스 미용실
☎ : B) 532－7094, R) 248－2437
(코리아 하우스 뒤)

시설및 수리

집수리·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 : 669－5784 미스타 심

상하수도 전기제품 각종유리
PAINT 수리및 시설
☎ : 535－4441 미스타 김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 : 438－3795 김 영 호

TV 출장 수리
☎ : 431－0102 미스타 박

KIMBO ELECTRIC CO. :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보수, 가게신설, 용량증설, 전기일 일절 집, 가게, 공장
☎ : (B) 245－5544(PAGING)2790, (R) 255－2161

이삿짐및 운송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악 기 점

조율 수리 SOO PIANO SERVICE
SIMP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 : 222－4662 김 수 웅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 : (R) 636－1430, (B) 783－6871
1547 EGLINTON AVE. W. 이 상 철

여 행 사

한 국 여 행 사
593 BLOOR ST. W.
(B) 531－4607
(R) 487－8088 성 낙 윤

천 우 여 행 사
720 SPADINA AVE
928-3335 김현두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536-2155 김창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21A BLOOR ST. W.
535-2377 유지원.

카펫·카텐

가나안카텐·카펫 브라인드 SHADE
2390 LAKESHORE BLVD. W.
☎ : (B) 252－4857, (R) 252－6602 유 원 덕

카펫 크리닝 : 카펫·소파·체어·자동차시트
☎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회계사무소

YOUNG C. LEE M. B. A. R. I. 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CA Office근무중
●BOOK KEEPING & ACCOUNTING
●MANAGEMENT CONSULTING 이 영 철
●INCOME TAX PREPARATION ☎ : 239－6802

공인회계사 이 명 세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AUGA 전화 : 273－7300

에어콘·히팅·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판매·수리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환 영

Palmer's 시설·판매·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 : (B) 746－3840~1, (R) 493－9945 김 봉 균

센 츄 리 냉 동 원 종 성, 이 인 식
☎ : 221－5441

KIM'S 냉장고, 에어콘
시설 수리일체
☎ : 749－3178 김 진 환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페인팅, 토잉써비스
95 PORTLAND ST. ETOBICOKE
☎ : 255－2111(B) 828－5001(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64 MUNSTER AVE. (BLOOR & 키플링)
☎ : B) 231－6951, R) 742－5408 오 세 호

ROGERS GARAGE ☎ : 651－9324(B) 226－5430(R)
자동차 수리 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자동차 고장??
(한국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한 방 원

침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922－7090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뜸

안 강 용 한 약 건 재 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진푹웅담●녹용●우황청심환●사향●경명주사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일주일 내내 : 아침10시~저녁8시 (일요일도 OPEN),
차이나타운내(465 DUNDAS W.)
☎ : 363－3883 363－2088 최 호 권

서 울 한 의 원
●30여년간 서울에서 한의원 경영
●대한한의사협회장의 한의학발전공로표창장10여회 수상
※진료과목 : 한방내과·신경과·부인과·침구과·산후보약
주소 : 10 Blackfriar Av #216 Weston, Ont. (Kipling×Dixon)
☎ : 247－9347 한의사 : 김 장 석 (왕진함)

꽃 집

크로스웨이(구 콜레어리)
꽃 집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남파·김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875 JANE ST. TOR.
*생화, 조화, PLANTS * GIFT취급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 주문 배달함.
☎ : B) 769－0609
R) 221－0560 여 정 웅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 751-5851 이 동 환

정 은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기 타

SOMÉ JEWELLERY쏘메쎄라
●각종보석주문(공장도가격), ●옛보석을 새보석으로
●데자인, 보석수리(일본말 환영)☎ : 225－4641

PICTURE FRAME WAREHOUSE
각 종 액 자
3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조 혜 숙

SUREKILLER
각종벌레, 캐미, 바퀴벌레 : 100% 효과보장
☎ : 368－9018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 촬영
○각종카메라·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증명사진
619 Bloor St.W. Tor. ☎ : 534－1085 김 춘 학

새한칼라 현상소
●결혼 ●돌사진 ●각종 증명사진 ●회갑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630 BLOOR ST. W. TOR.
☎ : 535－7772

니폰·비데오 센터 : 많은 한국테이프가 새로구입
주6일 오픈, 1993 DANFORTH AVE. TOR.
☎ : 698－0633 하마구찌

다이야몬드·스타
공장가격으로 특별우대, 주문에 의해서 보증서 책임
신용본위 ☎ : 537－0432(B), 534－3346(R) MR. LEE

매매 부동산

복덕방 ROYAL TRUST CO., (로얄 트러스트)
주택전문 ☎ : (B) 752－3111, (R) 298－2546
곽 석 용

인벤토리

INVENTORY
①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② STORE 월기조사 INVENTORY
③ STORE 납세대비 INVENTORY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B)259－5822, 255－8301 (R)252－3963 MR. 오

—인벤토리—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구 혼

"구 혼"
냉동기술 1급 자격증 소유한 31세의 대졸남성
정숙한 여성원함.
☎ : 654－1922. 김 윤 수

모눈종이위의生 ②

金趙光善培作 畵作 <235>

민희가 아들을 낳았다는소식은 한달전쯤, 그러니까 내가 부산여행에서 돌아온지며칠 후 우리 집에도 전해졌는데, 그 소식은 물론 연전동 이모님이 가지고 온것이었다. 아마 민희의 남편 입경일씨가 시댁쪽에 국제전화를 걸었던 모양으로, 시댁 쪽에서는 연전동 이모님께, 이모님은 우리집으로 소식을전하신 것이었다. 그러잖아도 연전동 이모님께서는 우리집에 한번 오실 참이셨는데 (그것은 병원에나 집에나 아무 말도 남기지않은채 집을나가 이레쎄이나 행방불명이 되었던 내가 돌아왔기 때문이다) 마침 기쁜소식까지 가지고 오시게 되어 퍽 상기된 표정을 짓고 나타나셨던 것이다.

민희는 홍콩에서 어머니께나 내게나, 또는 아버지께도 그렇게 자주 소식을 전하지는 않았고, 한번인가 두번인가 왔던 간단한 안부 편지와 아버지께서 그곳에 들르셨을 때 민희 부부를 만나보시고 전해주신 소식을 빼고는 내게나 어머니께나 그애의 사는 품수를 알 수 있는 별다른 단서가 없었다. 연전동 이모님께서 머러 민희의 시댁 쪽으로 전해진 단편적인 소식을 전해주시기는 했지만, 고작해야 아파트에 산다, 수입에 비해 물가가 비싸 저축할 여유가 없다는 따위 살림의 겉보기 모습에 지나지 않았고, 그런 갑작스런 결혼을 한 그들 부부의 금실이나 그것의 맑고 흐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알 길이 없었던 것이다. 다만 아이를 가졌다, 아들을 낳았다는 수접 할기의 소식만으로 별 문제가 없이 살고있구나 하고 안도했을 뿐이었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았던 모양이었다.

민희가 내처 이틀씩이나잠만 자고 있는 동안 어머니께서는 안절부절을 못하셨고, 기회만 있으면 내게 『뭐 하는 얘기 없던?』하고 물으셨다.

『싸운 게죠 뭐, 염려하지 마세요. 임서방이 데리러 올 거예요』하고, 그때마다 나는 어머니를 안심시켜 드렸는데, 옛날의 내 일이 기억되어서인지 어머니께서는 쉽게 안심하는 눈치가 아니셨다.

사흘째 되던날 드디어 민희의 시댁에서 사람이 왔다. 아침 일찍 연전동 이모님과 함께였는데 오십줄의 중년부인으로 입경일씨의 고모라는 여자였다. 그녀는 좀 교양이 없어 보이는 말씨에 뚱뚱보였는데, 대문으로 들어서자마자 『아니, 이런 법이 어딨어? 이역만리 타국에다 핏덩이하고 아비하고는 어떻게하라고…이래도 괜찮은거야?』하고 떠들면서 대문을 열어준 은애나, 문간방에 아직외출을하지않고 있던 노염지나 혜정이, 그리고안방에서 얼굴을 내놓은 어머니나 나나 사정없이 노려 보았다. 민희의 잘못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사돈 집에, 그것도 처음으로 찾아와서 부린 그녀의 행패와 언동은 상식이하의 짓이었다. 나중에는 울며 불며 전쟁통에 고아가 된 입경일씨와 (경찰관이었던 아버지는 전사했고, 어머니는 행방불명이 되었다고 했다) 여학교 학생이었던 그녀가 어떻게 간난의 세월을 이겨왔나 호소했다. 조카를 가르치기 위해서 희생한 그녀의 청춘은 눈물겨운 바가 없지도 않았다. 그러나 민희는 그녀의 그런 호소까지도 냉정하게 묵살하였으며, 어머니와 이모님이 옆에서 아무리 설득해도 귀 기울이려 들지 않았다. 그때 처음으로 입을여는 민희의 얘기로는 입경일씨가 심각할 정도의 의처증환자라는 것이었다. 신혼여행 때부터 민희가 처녀가 아니라고 트집을 잡기 시작하더니, 홍콩에 가서는 뱃속의아이도제 아이가 아니라고까닭을부려댔으며, 마침내는 폭력을 휘두르기까지 했다는 것이었다.

제아무리 결혼이 신선해도 때리는 남자와는 함께 살수 없잖으냐고 민희는 완강히 버티었고, 입경일씨의 고모는 입경일씨가 홍콩에서 부쳐왔다는 홍콩 행 편도 비행기 표한 장을 남겨놓고 돌아갔다.

생명의 말씀
CITY-TV : 채 널 79
케이블 7
일요일 8 : 30~9AM
MTV : 채 널 47
케이블 4
목요일 12 : 30~1PM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美「生命工學」企業化경쟁

에너지·食品등 20工場 가동
5년간5百30倍成長기업도

本社 鄭逸和기자 샌프란시스코灣「DNA계곡」을 가다

【샌프란시스코灣DNA계곡에서=로스앤젤레스支社=鄭逸和기자】 샌프란시스코灣의 右岸계곡―유명한 사방30마일의 실리콘계곡(半導體산업의 연구단지)을 왼쪽언덕너머로 밀치고 名門 스탠퍼드대학과 버클리대학사이에 연기없이 20세기말 제2의 산업혁명을 불러일으키는 生命工學(바이오테크놀로지)의 메카가 이미 형성돼 15개 이상의 대공장을 중심으로 펼쳐지고있다. 80년12월 스탠퍼드대학과 샌프란시스코의 캘리포니아대학이 공동으로「유전인자 접합조작」기술특허를 美연방특허국으로 부터 얻어낸후 이 DNA기업의 열기가 일어났다. 자본금 10만달러의 생명공학회사가 5년만에 5백30배로 급성장하고 生命工學기업의 주가는 뉴욕의 증권시장에서 1년사이 10배이상 뛰었다.

◇新産業革命… 生命工學의 産室 경내 깊숙이 자그마한 모습을 드러내고있는 제넨테크 (Genentech)社。입구에는 외인출입금지 (Private) 라고 쓴 간판이 있을뿐 여기가 DNA 산업혁명의 산실이라는것을 눈치챌만한 아무런 흔적도 없다. 【朴世勳기자찍음】

두터운情報壁…새物質탄생
先頭走者 제넌테크社엔 博士40명

권위있는 의학잡지인「스탠퍼드·MD」는 최신의 81년 겨울호 특집에서『이 DNA계곡은 세계최고의 고도기술산업 1천5백여개가 모여있는 실리콘·밸리의 영향력과도 비교가 안될 거대한 혁명을 20세기문명에 가져올 것이다』고 豫斷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바다를 끼고 남쪽 산호세쪽으로 내려가는 중간쯤의 지역과 금문교보다도 2배나 긴 베이·브리지를 건너 맞닿는 곳 버클리근처가 DNA밸리를 형성하고 있는곳이다. DNA밸리는 스탠퍼드大、UC샌프란시스코大、UC버클리大등 명문대학을 둘러싸고 넓게 퍼져있다.

제넨테크(Genentech) 시터스(Cetus) 드넥스(DNAX) 인텔리·지네틱스(Intelli-Gene tics) 벡톤·디킨스社 신텍스社등. 非영리 과학연구소인 스탠퍼드연구소(SRI) 국제식물연구소(IPRI)등도 연구열을 유전공학쪽에 급속히 집중시키고있다. CPA、CIC등 이제 겨우 사무실만갖춘 회사들도있으며 이미상당한 실험과정을 거친 것들중 이름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은것도 있다. SRI의 유전공학 담당부사장인 W·스키너박사는 DNA산업체들이 샌프란시스코灣 양옆으로 15~20개정도 있다고 증언했다. 누가 어떤 사업을 차렸는지를 잘알수없을 정도로 이분야는 산업정보가 두터게 보호되고있는입장. 다만 유수한 유전공학자들이 산업체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것만 확실하다.

샌프란시스코灣 아래위를 오르내리면서 겨우 발을 들여 놓을수있던 DNA산업의 선두주자인 제넨테크社로 버트·스완슨(33)이 1976년 UC샌프란시스코의 유전학권위자인 로버트·보이어박사를 만나 자본금10만달러로 시작했다.

5년를 지나는 사이에 5천3백만달러의 거대한 산업으로 발전한 DNA의 기린아다. 스탠퍼드대학이 있는 칼로알포에서 샌프란시스코쪽으로 가다가 南쪽 샌프란시스크바다쪽으로 뻗은 섬같은 돌출구에 자리잡고 있다.

건물입구에는「출입금지지역」(Private)이라는 조그마한 경계판이 붙어있고「GENENTECH」이라는간판은 훨씬 안쪽에 꽂혀있다. 섭외담당자인 그랜트씨가 전해준 자료에 의하면 제넨테크는 5단계의 실험과정을 이미 끝마쳤다. 창설 이듬해인 77년당뇨병 치료에 획기적인 공헌을세운 뇌호르몬 소마포스타틴을DNA배합으로 생산、성공했으며 78년에는 인슐린、79년에는 인간의 성장호르몬과흉선호르몬알파I、그리고80년에는 인터페론을 같은 방법으로 생산하는데 성공했다. E·콜라이박테리아의 플라스미드에 소마포스타틴、인슐린등의 DNA를 효모로접합시켜 이를 배양해내는 정석이론에 따른 것이다.

제넨테크는 이같은 생산법을 이미 세계최대의 인슐린 제조회사가된 일라이·릴리社에「수백만달러」에 팔아 큼직막한 동업자를 만들었다. 80년말현재 정규사원 1백26명가운데 과학자90명、그중 40명이 박사학위를 갖고 있다.

유전인자 접합조작(Gene Splicing 또는 Recombinant DNA)法은 1980년12월 스탠퍼드대학과 샌프란시스코의 캘리포니아대학(UC샌프란시스코)이 공동으로 美연방 특허국으로부터 특허를 받았다.

"人造인터페론 人體抗癌 효과탁월"
1년간 실험 값도 10分의1

【샌프란시스코23日AP聯合=本社特約】 미국에서 처음으로 인조인터페론을 지난1년동안 암환자에게 실험투여한 결과 고무적인 성과를 얻었다고 연구원들이 22일 말했다.

사람의 백혈구에서 자연적으로 발견된 인터페론은 이미 抗癌효과가 높은것으로규명된바있는데 세균에서 유전자를 분리、추출한 인터페론 역시 똑같은성질을 갖는다는 것을 이들은 밝혀냈다.

인터페론은 인체에서 뽑아내는것보다 세균에서 생산하는것이 적어도10배가싸며 훨씬 많은 양을 생산할수있다.

癌免疫 인터페론 제넨테크社 開發

【샌프란시스코23日聯合=特約】 미국의 저명한 유전자공학산업체의 하나인 제넨테크社는 세계최초로 유전인자분리방식을통해 암세포성장억제효과가 있는 단백질 면역인터페론을 생산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제넨테크사의 데이비드·고델박사는 이날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국제인터페론연구대회에서 이같이 밝히고『면역인터페론을 다량으로 구할수있는 가능성이 높아짐에따라 의약품으로서 치료에 직접사용할길을 열어놓았다』고 말했다.

秋穀收買값 10%線 인상

申부총리 國會답변 "賃金등 苦痛분담으로 經濟안정"

申秉鉉부총리는 23일『80년도 收買價는 81년도 物價전망을 20~25%로보고 凶作을 감안하여 25%인상했었다』고 밝히고『금년도 수매가는 82년 物價전망을 10~14%、平年作유지를 전제하여 10%선 인상으로 안정을 유지해야한다』고 말했다.

申부총리는 이날하오 국회經科·農水産연석회의에서『82년 經濟운용과 政策課題』에 관한 보고중 올秋穀收買價에 관한 대목에서『秋穀수매제도는 시장원리의 창달이라는 정책전환과 부합되게 단계적으로 전환할것』이라고 말하고『만일 20%수준으로 결정할시 실질소득의增大없이 경제체질만 弱化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收買價를 10%인상할때는 가마당 5만3백원、20%인상때는 5만4천9백원이며 또 20%인상때는 8~9백만석의 收買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申부총리는 81년 秋穀수매가는 82년물가 특히 食料品가격안정、임금안정 그리고 安定化노력의 苦痛分擔의 측면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申부총리는『國內外與件을 종합할때 82년은 금년보다는 나아질것이나 또하나의 어려운해가 될것』이라고 전망하고『따라서 82년 경제운용은 物價안정과 국제수지 방어에 최우선을두고 安定위주로 하면서 제도개선등 구조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內實을 다져나가야하며 그과정에서 派生되는 모든 어려움은 농민 근로자 기업 家計 정부등 경제의 모든 구성원이똑같이 分擔해야한다』고강조했다.

이어 高建농수산부장관은 보고에서『쌀생산비 조사는 전국 3천3백75호의 농가를 표본으로 설정、前年度 12월1일부터 當年11월30일 까지 경비를記帳하고 이를 12월1일 수집해 생산비를집계하나 주로 집계전에 收買價가결정돼야하기때문에 전년도 확정생산비통계를 기초로 생산비상승률을 계산하고 있다』고 설명하고『단보당 생산비가 결정되면 이를 가마당으로나누나 금년도 정부측 생산비상승률은 14·2%에서 농협등의 18%까지 이르고있다』고말했다.

그는 이어『풍작이 될수록 가마당 생산비는 낮아질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高장관은 또『秋穀수매가결정에있어 제반 營農자금의 보상、3년간의 흉작등도 보상돼야하나 정부측으로서는 농촌경제도 전체경제의 일부이기때문에 어느선이 합당한 선인지 말할수는없다』고 밝혔다.

"高入선발 곧 全面內申制로"

文公委 李奎浩문교장관은 현행 선발고사로 돼있는 高校입시제도를 內申성적과 선발고사를 병행、일정한 시험기간을 거쳐 빠른 시일내에 완전內申制化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으며 대학에서의 이데올로기교육을위해 여건이 조성되는대로 이른바 금지구역을 철폐할 생각을 갖고있다고 밝혔다.

그는『종합교육의 정상화와 전인교육을위해 내신제가 바람직하며 이데올로기 교육에 있어서도 교육의 자질등여건이 조성된다면 금지서적 등을 굳이 제한할 필요는 없으나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李장관은 또 고교입시를內申制로 전환할경우 지방교육위원회의 특수성을 살려 일률적이 아닌 지방사정에따라 유도하는 방법을마련하겠다』고 밝혔다.

李장관은 또 학원문제와관련、『知的호기심을 넘어 과격한 행동으로 집단소요를구체적으로 시도하려한다면 법과 교칙에따라 다스릴수밖에 없다』고 밝히면서『특히 정치·경제발전을위한 사회안정을 우선으로하는 우리의 특수적인 상황이나 대학의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이같은 방침이 불가피하다』고밝혔다.

그는 이어 대학생해외연수의 경우『부작용이나 문제점등을 보완해 꾸준히추진해나갈생각』이라고 밝혔다.

李大淳 南載熙 沈相宇(이상民正) 辛相佑 康源采의원(이상民韓) 등은 ▲義務교육의 연장 ▲국민학교 영어교육준비 狀況 ▲私學육성방안 ▲學制개편 ▲대학생의 해외연수의 문제점등을 추궁했다.

軍事보호지역 완화
學資金융자 保證人없애

財務委 李承潤재무장관은『기업의 재무구조는 지속적으로 꾸준히 개선해 나갈것』이라고 밝히고『8·3조치와 같은 급격한 조치는 취하지 않을것』이라고 말했다.

그는『재정의 소모성경비를 최대한줄이고 저소득층에 혜택이가는 경비를 늘리겠다』고 말했다.

李聖秀(국민) 林鍾基 李英駿(民韓) 李洙鍾의원(無同)등은『정부는재정규모를과감히 축소하여 앞으로2~3년간 현수준으로 유지하고 稅率을 인하하여국민의擔稅率을줄여야한다』고 주장하고『外債와外換保有高에대한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가』고 물었다.

李承潤재무장관은『학자금지원을 늘리고 보증인없이학자금을 융자하는 방안을검토하겠다』고 말했다.

國防委 周永福국방장관은 군사보호지역을 대폭완화할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국방부는 현재 군사보호지역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인정、지난7월부터 재검토 작업에 들어갔다』고 말하고『금년안에 이작업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保社委 千命基보사부장관은『의료보험일원화를 단계적으로 실현하겠다』고 밝히고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보건의료비상승을 억제하고▲보험酬價와 일반酬價의 격차를 해소하며▲의료서비스개선책을 확대하며 관리체계의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內務委 徐廷和내무장관은 야간통행금지 제도의 해제문제에대해『야간통행금지 제도는對共문제와 관련이있고對共경찰요원의 상당수 증원이 필요하다』고 말해 해제에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湖南·中部 한달빨리「첫눈」

◇23일아침 한파와함께 서울을 비롯한 중부·호남지방에서는 예년보다 한달이나 빠르게 첫눈이 내렸다. 11cm가량 폭설이 내린 충남天原郡木川面新溪里들판에서 한농부가 쓰러진 벼를 일으켜 세우고 있다. 【天安=聯合】

地平線

스위스란 나라는 세계를 향해 자랑할것이 많다. 수려한 알프스의 풍광과 뛰어난 정밀공업、빌헬름·텔의 전설과 그정신을 이어받은 中立·自存하는기상、그리고 미국을앞선 소득수준…。그러나 스위스가 리사이클링(資源再生)의 세계 챔피언이란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스위스의 도시와 마을을 돌아 보면、곱게 챙겨 묶어 놓은 헌신문과 잡지뭉치가 집앞에 놓여있다. 폐지수집 업자나 자선단체가 이것들을 한달에 두차례 거둬간다. 스위스에서 해마다 소비하는 종이 1백만톤중 40만5천톤은 이렇게 재생된다. 그러나 스위스 사람들이 철저한 것은 종이재생만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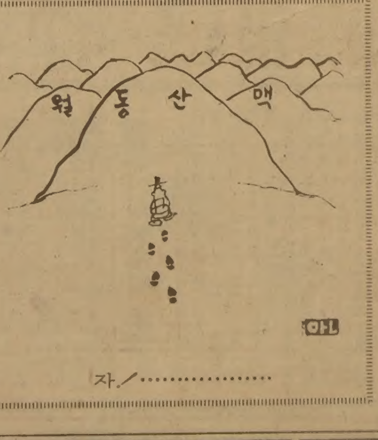
▼독일계와 프랑스계가 주축인 스위스 사람은 맥주와 포도주를 좋아한다. 그 술병에는 우리 돈으로 2백원꼴의 값이 붙어있다. 메이커가 병을 출하할 때 병을 환수하기 위한 비용을 예치하는 것이다. 집에서 사용한 알루미늄 깡통도 말끔히 회수한다. 스위스에서 해마다 쓰는 10만톤의 알루미늄중 2만톤이 이렇게 되살아난다.

▼스위스 각 가정에는 6개월에 한번씩 노랑색의 비닐·백이 배달된다. 헌 옷을 넣어서 보내 달라는 쪽지가 붙어있다. 이렇게 모아지는 헌옷이 한 해 7천5백톤. 입을만한 옷은 가난한 나라에 구호품으로 보내고、나머지 5천톤은 공장에 보내져 재생된다. 다 쓰고난 건전지도 라디오방이나 전기기구 상점에서 회수한다.

▼리사이클링 운동은 물론 스위스만의 특허는 아니다. 그러나 스위스의 자랑은 이운동에 모든 가정이 호응하고 있는 것、그리고 이일에 自願단체가 앞장서서 자선목적을 돕는다는 점이다. 예컨대 폐지수집 사업은 작년에 취리히 한 도시에서만 8천만원의 자선수익을 가져왔다. 이 돈은 각종자선단체에 분배된다. 헌옷수집도 스위스赤十字가 6개 자선단체를 위해 착상한 사업이다.

▼스위스만큼이나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도 리사이클링의 강화가 절실하다. 지금 시범실시를 예정하고 있는 쓰레기分離收去는 그런데도 뜻이 있다. 그러나 주부들이 可燃性·不可燃性·再生可能性 쓰레기를 분류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고 한들、그것을 거두어다 어떻게 하겠다는건지 알수가 없다. 쓰레기 燒却공장하나 없으니 말이다. 겉만흉내내지 말고、쓰레기를 실속있게 처리하는 연구가 앞서야할것같다.

社会漫評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 동 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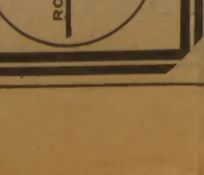
531-0277
한국관
연중무휴
AM11시 새벽1시
특별메뉴
●식욕을 돋구는
된장찌게정식
순두부찌게정식
생선찌게정식
민어매운탕
즉석불고기정식
즉석곱창전골정식
곰탕, 꼬리곰탕
·입반죽 냉면
비빔냉면
회냉면
중국요리일절
결혼피로연, 환갑동창회
각종회의, 단체손님환영
※회의실 60석
성심 성의껏 염가로 봉사하겠아오니 왕림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나옥녀 올림

가나안교회 창립 제2주년
기념 부흥성회

"어찌하여 자느냐"
존경하는 교민여러분 주님의 크신 은총이 귀가정과 하시는 사업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번 저희 교회에서는 창립2주년을 맞이하여 "백화기"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의 잔치를 베풀고저 하오니 바쁘신 중에도 부디오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강사소개 : 학력 — 대구개명대학졸업
한국신학대학졸업
침례교신학대학및 대학원졸업
캐나다크리스챤대학졸업
경력 — 포항침례교회담임
영남침례신학교 교장
한국침례회 총회 총회장
포항시 기독교 연합회장
한국부흥사협회 회원
사모아 선교회 이사
미국, 캐나다, 일본, 멕시코 등지 부흥집회
강 사 : 백 화 기 목사

일 시 :
1981년11월13일(금)
〃 14일(토)
〃 15일(주일)
오후7시30분
장 소 : 가나안 장로교회
1428 ROYAL YORK RD.
(AT EGLINTON)
(로얄·욕크와 에그린톤 만나는 지점에서 한 골목 북쪽)



가나안 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정준및 교인일동

카나다보석협회 회원
KORYO
확장 이전 1주년 기념 SALE
20% OFF

고 려 보 석
EATON CENTRE (Level 1 분수대옆)
979-3196

解決策없는「貧富同席」

南北 頂上회담에 비친 兩側입장

南 原資材하락…輸入品은 상승 經濟질서 改善요구

선진공업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짜여진 현경제질서를개편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칸쿤南北정상회담에참석한 제3세계개발도상국 대표들의 주장이다.

이제까지 한두가지의 원자재수출에만 의존하고있는 비산유개도국들의 경제는 최근 몇년동안 주요産物인 식품과 원자재價가 하락된 반면 원유와 가공수입품의 국적인가격상승으로 커다란위기에 직면했다.

따라서 개도국들의 주장은 이런 문제가 현국제경제시스팀의 결함으로 유래했으므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가들에 유리하게 돼있는 무역조건과 관세, 이익분배를 개선하고 국제시장을 안정시킬 범세계적인 협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도국들은 자기네 상품가격의 인상을 도모하되 적어도 안정을 도모할수 있는 조치를 제정토록 요구할 것이다. 그동안 국제시장의 불안으로인한 富益富, 貧益貧은 점차 첨예화됐다. 74년 아프리카의 貧國인 잠비아는 국제시장의 銅값이 60%하락, 국내경제에 큰 타격을 입은 반면 미국같은 선진국은 오히려 수입액이 반으로 줄어드는 득을 보았다.

가나, 아이보리코스트등의 제1수출품인 코코아도 75년 이래 4%가 떨어졌다. 또 수출의 80%를 원자재에 의존하고있는 남미도 코피, 설탕에서 은, 銅에 이르기까지 국제시장의 커다란가격동요로 경제에 큰 혼란을 몰고왔다. 칠레는 유럽공동시장, 일본등의 칠레사과 수입제한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고있고 최근 미국이 銀을 1억온스판매키로 결정하자 페루, 멕시코의 銀값은 온스당 4달러가 떨어졌다.

페루의 경제학자 코러디오·헤르즈킨씨는『시장의 자유경쟁이 레이거노믹스의 기본이라지만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위해 세계시장에 개입했다. 여기서 우리는 그의 2중인격을 본다』고 비난했다.

개도국들은 또 차관도입의 보다 공정한 대우보장과 세계은행, IMF등 국제경제기구의 역할증대를 원한다. 빈국들의 외채는 71년 6백80억달러에서 80년도에는 4천3백90억달러로 올랐으며 더우기 세계적인 고금리와도 싸워야한다.

따라서 선진국들은 개발계획에 용이하게 차관을 얻을수있는 세계은행의자본을 늘려야하며 세계통화를 조정하는 IMF가 특별인출권으로 불리는 자체통화의발행을 늘려 그들의 외환적자를 구제해줄것을 개도국들은 요구하고있다. 【兪奭根기자】

심화된 남북의 빈부격차는 도저히 따라잡을수 없을만큼 잘사는 北그룹의 파격적양보없이는 좁혀지기 어렵다. 이번 칸쿤회담은 당초부터 근본적 합의는 가망없을것이라는 전제아래 열리고있다. 議題를 따로 정해놓지도 않았고 회의가 끝난후 공동성명도 예정에 들어있지않다. 회의는 南그룹이 말하고 北그룹은 듣는 형국으로 이어지고있다. 평행선을 긋고있는 南과北의 주장을 요약해보자.

◇개막된 南北정상회담 22일 칸쿤에서 개막된 남북정상회담장의 모습。【칸쿤(멕시코) 22日AP電送=聯合】

北 무작정「經援」은 拒否 한국·臺灣등 成功사례들어

南北문제는 현 국제경제질서의 토대가 되고있는 자유경제원칙아래서 해결되어야한다는것이 北쪽 富國의 입장이다.

富國의 보스인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은 소위「새로운국제경제질서」를 참조해야한다는 貧國들의 요구는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있다.

제3세계 경제번영의 열쇠는 무조건 貧國에 대한 원조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원칙에 입각한 자유무역, 내핍정책등에 달려있다는것이 레이건의주장이다.

미국을비롯한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에 대해 보다많은투자기회를 제공, 自活을 통해 빈곤을 타개하되 필요한원조는 세계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IMF)같은 세계경제기구를 통해 자금지원을 해주는 정도에 그쳐야한다는주장이다.

따라서 알제리등 강경국들이 주장하고있는 새로운국제경제질서요구는 戰後 미국이 이끌어온 세계경제질서의 주도권을 빼앗아가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하고있다.

미국은 자본주의 경제원칙을 적용하여 성공한 사례로서 한국, 대만, 아이보리코스트를, 또 사회주의체제를도입함으로써 경제문제에 실패한 국가로 탄자니아, 베트남등을 열거하고있다.

그러나 서독, 프랑스등 칸쿤회담에 참석중인 나머지 富國들은 南北문제 해결방안에대해 미국과는 다소 엇갈린 태도를 보이고있다.

南쪽의 주장에 호의적인태도를 보이고있는 미테랑프랑스 대통령이나 트뤼도 캐나다수상은 미국과 알제리로대표되는 南北의강경자세를 중재하여 소위「범세계적인 제2의 뉴딜정책」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있다.

한편 레이건美 대통령의경제노선을 강력히 지지하고있는 대처영국수상도 최근 열렸던 英연방회의에서 채택한 성명에서 南北문제해결을 위해 유엔 주관하의「범세계적협상」을 촉구하고 南쪽國들이 처하고있는 경제적 곤경을 타개하기 위한「적극적이고 효과적인방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미국과 기타 서방선진국들이 협상테이블에서 보조를맞추지못하고있는것은 프랑스, 서독이 최근 사회주의적인경향을 보이고 있고 영국등은 과거 식민지였던 제3세계국가들과 밀접한 관계를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레이건의 고금리정책등 보수적인 경제정책으로 인해 서방각국도 인플레, 실업의 증가등 경제난에 직면하고있다는점도 상당한 작용을 하고있다. 【朴永喆기자】

美, 貿易자유화·食糧開發 동조

레이건 제3세계 貧困退治협상 용의

南北頂上회담서 연설

【칸쿤(멕시코) 22日UPI·聯合】 레이건美 대통령은 22일 멕시코의 칸쿤에서 공식 개막된 南北경제정상회담 연설에서 미국은 제3세계의 빈곤퇴치와 남북간의 현안을 다룰 세계협상을 조건부로 수락할 용의가 있다고 밝힘으로써 개도국의 자체노력을 강조하던 지금까지의 강경자세에서 일보후퇴, 융통성을 보였다.

레이건 대통령은 개도국의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자유경제체제하에 선후진국간의 교역을 확대하고 민간투자를 촉진하여 개도국내에 투자여건을 조성하는것이 필수적이라는 자신의 소견에는 변함이 없으나 참석국대표들이 ①무역자유화와 에너지및 식량자원개발에 동조하고 ②불필요한 새국제기구창설을 포기하며 ③대결분위기를 지양하고 ④협조분위기를 조성하고 협상이 세계경제성장및 개발의 지에 초점을 맞추는등 4개 조건을 수락하면 미국은 유엔후원하의 세계협상의 예비과정에 참여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레이건대통령은 최근 일련의 세계경제문제에대한 연설에서도 이문제에 언급하기를 회피해왔었다.

레이건대통령은 그러나 회의개막직전 오스트리아대표단의 新마셜·플랜은 현단계에서는 현실적이못된다는 이유로 거부의사를 나타냈다.

【칸쿤(멕시코)AP·AFP=聯合】 北쪽세계의 부국들과 南쪽의 빈국들간의 富의 격차를 줄이고 자원배분에 균형을 이루기 위한 사상최초의 남북정상회담(공식명칭은 협력및 개발에 관한 국제회의)이 23일상오1시(한국시간 이하 같음) 로널드·레이건 美대통령을 비롯한 8개선진국지도자들과 14개 개발도상국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일간 예정으로 멕시코의 휴양도시 칸쿤에서 개막되었다.

이날 멕시코의 유카탄반도에 자리잡은 칸쿤휴양도시의 칸쿤셰라톤호텔에 둘러앉은 22개국정상및 지도자들은 포르티요의장의 개막연설과 레이건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대표의 연설을 들은후 예정보다 한시간 걸어진 제1차 전체회의를 이날상오6시에 끝냈으며 이어 인디라·간디 인도수상이 주최한 오찬에 참석했으며 이어 하오회의를 속개한다.

◇演說듣는 레이건과 헤이그 레이건 美國대통령(오른쪽)과 알렉산더·헤이그 국무장관이 22일 개막된 칸쿤南北정상회담에서 다른나라 대표들의 연설내용을 듣고있다。【칸쿤(멕시코) 22日AP電送=聯合】

勞組 全國委 긴급소집

波全域 示威熱氣 확산

政府선 戒嚴令선포 경고

【바르샤바22日UPI=聯合】 식량공급사정악화 또는 자유노조 행동대원구속에 대한 항의의 열파가 폴란드 전역으로 확산되고있는가운데 자유노조 전국위원회는 22일 그다니스크에서 긴급회의를 소집, 하루종일 전국적인 경고파업문제와 黨제1서기 교체에따른 상황변화를 논의했다.

1백7명의 전국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이날 긴급회의에서 일부 강경파위원들은 사회불안의 심화와 자유노조에대한 정부의 강경조처시도에도 불구, 오는28일 1시간 동안의 전국적인 경고파업을 벌이도록 요구했으나 이에대한 최종결정은 보류됐다.

자유노조 카토비체대표 레체크·발리체프스키등 강경파에의해 제안된 전국적인 경고파업문제는 특히 자유노조지방대표들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았으나 자유노조지도자 레흐·바웬사는자유노조의 행동이 정부와의그다니스크협정을넘지않아야한다면서 이성을 되찾도록 촉구했다.

◇로보트가 끄는 인력거 일본혼다자동차회사가 최근 東京에서열린 아이디어·콘테스트에서 선보인 로보트인력거. 1인승인 이 로보트인력거는 시속3마일로 갈수있으며 제작비는 4천3백50달러가 들었다。【UPI】

사다트暗殺은 쿠데타陰謀

政治·軍事지도층 전면 제거획책

【카이로23日UPI=聯合】 호스니·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은 23일 사다트 대통령암살사건이 이집트의 정계및 군부지도자들을 모조리살해한뒤 회교혁명을 선포하려던 회교정통파 테러분자들의 정부전복음모의 일환이었다고 말했다.

무바라크 대통령은 이날·아랍지와의 회견에서『이들 테러분자들의 목표가 야당지도자를 포함한 이집트지도자들을 모조리 암살, 혁명을선포하고 경제발전과 자유를봉쇄하려는것』이었으며 이같은 대교국가정복음모가 사다트 대통령이 사망하기한달전에 취해졌던 회교과격분자들에 대한 검거선풍으로주춤했었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최우선정책목표가「안보와 안정」이라고 선포한 그는 무력을 사용하거나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어떠한 개인·단체·정당이라도 엄단에 처할것이라고 경고했다.

무바라크 대통령은 또 이스라엘과의 평화조약체결을 이유로 이집트와 국교를 단절한 아랍국가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재검토해줄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스라엘과의 평화조약준수를 거듭천명하면서『아랍국가들이 이집트와의 국교재개를 원한다면 이를 기꺼이 환영할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만약 정부의회교과격파제재조처가 없었더라면 테러분자들은 그들의 테러목표를 달성했을것이며 이경우매우 중대한 탄압조처가 필요했을것이라고 덧붙였다.

美·英·카나다人이 리비아機 操縱

【뉴욕22日UPI=聯合】 전美중앙정보국(CIA)직원 에드윈·윌슨이 리비아공군을위해 유럽과 미국항공사에서 미국인 영국인및 캐나다출신 조종사와 기술자를 모집했다고 뉴욕·타임즈가 22일 보도했다.

이들은 대부분이 군고참조종사들로 리비아의 미제화물및 수송용 비행기와 헬리콥터를 조종하고있다고 이신문은 보도했다.

이신문은 전에 윌슨의동료였던 영국인 스코틀랜드·야드와 미국관리들의말을인용, 런던발신기사로 이사실을 보도했다.

世界22國頂上 한자리에

南北회담場 칸쿤의표정

【칸쿤(멕시코) 22日UPI합동=聯合】 南北 경제정상회담을 위해 세계22개국지도자들이 모여든 멕시코의휴양지 칸쿤에서는 역사적인 회담이있을때마다 뒤따르게마련인 갖가지화제가 만발, 기자들의 눈과 귀를 바쁘게 하고있다.

比製 家具로 장식

○…정상회담의 본부가 자리잡은 셰라턴호텔의 각국지도자 휴게실은 필리핀製 등나무가구로 장식돼있다고 페르디난드·마르코스 대통령을 수행, 이곳에와있는 필리핀 공보상이 발표.

그는 이 등나무가구들이 최근 마르코스 대통령에 의해 기증되는 형식으로 칸쿤으로 공수돼왔다고 밝혔는데 마르코스 대통령은 멕시코가 이 회의를 위해 필리핀 가구를 수입하려한다는 소식을 듣고 선뜻 선심을 쓰기로 결정했다는것.

레이건 防彈服입어

○…레이건美 대통령은 칸쿤의수도물이 마시기에 부적당하다는 소식을 미리들었는지 휴대품속에 음료수를 별도로 마련, 이물만을 마시고 있으며 간식도 미국에서 가져온 셀러리만을 들고있다.

레이건 대통령은 또 그 어떤 보안상의 이유가 있었는지는 확인할길이 없으나 칸쿤에 도착했을당시 방탄조끼를 입고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잔디에 金屬탐지기

○…금년70세의 레이건 대통령은 21일 셰라턴호텔에연해있는 카리브海에서 능숙한 수영솜씨를 발휘, 노익장을 과시했으며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수상스키로 여독을 푸는등 회담에 앞선 워밍업을했다.

한편 인도의 인디라·간디 수상은 이날 레이건 대통령을 방문, 30분간 회담을 나누었는데 보안요원들은 간디수상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어김없이 국제공항에서 실시되는것과 같은 금속탐지기를 들이댔다.

가난한인디언 외면

○…칸쿤에 도착한 北쪽의 부유국가지도자들이나 南쪽의 개발도상국지도자들은 이 지방사람들의 빈곤상에는 너나없이 눈길 한번 주지않은채 하루1백75달러짜리 셰라턴호텔로 직행.

칸쿤의 현대식공항에서 호화스러운 셰라턴호텔을 잇는 20㎞의 4차선고속도로에서 얼마 떨어지지않은 곳에는 맨발에다 허리만 나뭇잎으로 가린채 가난하게 살고있는 인디언들이 있으나 22개국지도자들은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가벼운 관심조차 보이는 사람이 없더라고.

무바라크招請보류

【베이루트22日UPI=聯合】 아랍국들은 오는11월 모로코에서 열리는 아랍정상회담에 호스니·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을 초청하기로한계획을 일단 보류시켰다고 베이루트의 안·나하르지가 22일 아랍외교소식통들을 인용 보도했다.

言論유학생 모집

財團法人 省谷言論文化財團은 美國·프랑스·日本·홍콩지역에 파견할 82~83학년도(제17기) 해외유학장학생을 모집한다.

留學기간은 1년이며 응모자격은 언론기관에 5년이상 근속한 만30세이상의 현직언론인으로 留學희망지역언어에 능통해야 한다.

응모서류는 ①志望願書1통 ②장학금受給志望者의 소속회사대표서약서(이상소정양식) ③國英文이력서 각1통 ④명함판사진2매 ⑤출업대학 성적증명 1통이며 오는11월14일까지 財團事務局(舊東洋通信社屋2층)에서 접수한다.

메아리

가을눈

경칩에 잠을깬 개구리는 霜降이 오면 다시 긴冬眠에 빠진다. 상강전날에 뿌린 비가 수은주를 氷點 가까이 끌어내리면서 이른 추위를 불렀다. 서울을 비롯, 중부와 호남엔 첫눈이 내렸다.

늦봄의 꽃샘눈은 흔하나 단풍을 시샘 하는「가을눈」은 드물다. 太陰曆의 절기대로라면 상강을 전후해서 첫얼음이 얼고 남부지방에서 제비가 더위를 찾아 날아간다. 가을과 겨울이 바톤을 바꾸는 철인것이다. 입동이면 겨울철새인 기러기가 날아오고 나무는 낙엽을 흩뜨리며 옷을 벗는다. 우리나라에서 첫눈은 대체로 이때쯤 내리는것이 정상으로 알고 있다. 전국적으로 볼때 어제 아침눈이 금년의 첫눈은 아니다. 한글날인 지난 9일 날씨가 영하로곤두박질한 설악산과 지리산에 첫눈이 이미 내렸었다.

10월이면 황금의 가을이 한창일 때다. 짓궂은 날씨의 변덕이 가을을 자꾸 좁혀 가는것만 같아 안타깝다. 우리 겨울은 시베리아에서 몰아치는 북서계절풍이 날씨를 지배한다. 가을엔 시베리아 고기압에서 떨어져 나온 이동성 고기압과 중국연안에서 생긴 저기압이 동쪽으로 옮겨 가며 날씨변화를 일으킨다.

10월에 들면서 겨울을 예고하는 북서계절풍이 차츰 닥쳐 온다. 그래도 가을의 평균기온은 섭씨 11~16도 내외. 이 쾌적한 기온마저 눈과 함께 영하로 내려가 으스스한 느낌을 준다. 기록상으로 우리나라 평균初雪日은 지역에 따라 크게 다르다. 북한의 三水지방이 10월26일, 남부는 11월7일, 중부는 11월3일께다. 이 기록과 대조하면 이번 가을눈은 드물기는 해도 대단한「이변」은 아니라고 하겠다.

첫눈은 우리에게 많은 想念을 안긴다. 낭만적인가 하면 까닭 모를 우울감을 주기도 한다. 純白의 청결감이 마음을 순수하게 씻어 줄것도 같다. 그러나 대부분의 생활인들은 겨우살이 준비로 긴장과 조바심에 싸인다.

전방엔 벌써 영하 14도의 모진 강추위와 함께 살을 깎는 삭풍이 불어 온다. 너무 짧게만 생각되는 가을이 아쉽지만 계절은 어김없이 겨울 문턱에 들어섰다. 모든 사람이 눈처럼 밝고 훈훈한 겨울을 살기 위해 채비를 서두를 때다.

記者의 눈

슈웨이처將軍의 解任

레이건 대통령은『소련이 미국에 대해 핵공격을 감행할 것』이라고 공개발언한 백악관국가안보회의 소속 슈웨이처소장을 해임, 국방성으로 전속시켰다.

슈웨이처 소장은 지난 19일 미육군협회의 연례모임에서 연설을 통해『소련은 미국보다 핵전력이 우위에 있다. 그들은 미국에 핵공격을 감행할 것이다. 소련은 벌써 그러한 행동을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다』고 강조했었다.

슈웨이처소장은 자기 상사이자 대통령 안보담당보좌관인 앨런의 사전 결재없이 그런내용의 연설을 했다는 이유로 問責을 당했다.

고위장성이 상관의 뜻을 어긴 공개발언으로 문책을 당한 사례는 4년전에도 있었다. 당시 주한유엔군 참모장 싱글러브소장은 카터 대통령의 주한미군철수정책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다가 군복을 벗었다.

그런데 슈웨이처는 싱글러브와는 달리 대통령의 의도를 뒷받침해 준것이 화근이 돼서 문책을 당한것이 주목을 끈다. 슈웨이처에 앞서 지난 16일 레이건자신도『강대국이 핵미사일단추를 누르지 않아도 유럽에서 제한핵전쟁이 일어날수 있다』는 경고발언을 했었다. 레이건과 슈웨이처의 발언은 장소와 시기만 달랐지 사실은 유럽의 反核무드를 꺾기위해 여론에 호소하려고 波狀공세로 나온게 분명했다.

육군출신 슈웨이처장군이 그만한 발언은 해도 좋을만한 자리였으니까. 문제는 이런 일련의 발언에 때맞춰 소련공산당서기장 브레즈네프가 들고 늘어져 전혀 예상치 않은 방향으로 번져간데있다. 브레즈네프는 레이건에게 핵전쟁에 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고 대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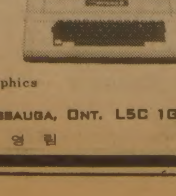
또 유럽사람들의 핵두드러기도 섞이나 소련과 입이 맞아 버렸다.『미국은 우리 유럽대륙을 핵전쟁터로 만들어 멸망시키려는가』

파문은 대통령이 일으켜 놓았으나 책임은 슈웨이처가 짊어졌다. 일을 수습하려니 어차피 희생양이 필요했는지 모른다. 슈웨이처의 해임은 文官우위의 미국통치원칙을 무섭게 확인시켜준 실례일 것이다.

【崔相鎬기자·外信部】

거북이선물집
각종귀국선물 염가봉사
617 BLOOR ST. W. TOR.
☎: B) 535-2143 R) 656-3446
대표 이 정 석

Dukes Computer
SMALL BUSINESS SYSTEMS
— Computer에 관한 일반적인 전화문의 환영 —
● SPECIAL SALE
자녀교육및 Business겸용
Apple II Plus
● SOFTWARE SERVICE
General Ledger
Account Receivable
Inventory Control
Payroll및 Word Processing
● PERIPHERALS
Printer, Games, Music, Graphics



826 FORESTWOOD DR., MISSISSAUGA, ONT. L5C 1G7
☎: 275-0702 오 영 림

한인업체를 도웁시다 !

많은 한인업체들은 불철주야 노력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경영란에 부딪치고 있읍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믿고,

서로 도와 굳게 모아진 힘으로

한인업체를 키웁시다.

한인업체의 경제적 발전은
한인사회의 발전을 의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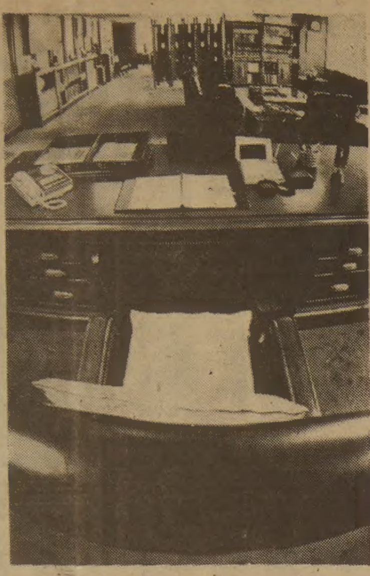
한국일보사 광고부
533-2361

한국인의 후예이며 시인이며 작곡가
안토니어·코레아씨
(토론토거주 이태리인)
레코드 판 판매
(Momentum)
영혼을 노래하는 뮤지칼.
한쪽은 영어로 취입.
판매처 : AQUITANE RECORDS
1235 BAY ST.
(블루어 북쪽)

◇안토니오·코레아씨

한국50大財閥을 벗긴다 ③

한국일보 특집판



風雲속의 浮沈 1世代

한국財閥의 成長과정을 알아본다

政·商 유착 제1호는 48년 「泰昌」
6·25뒤엔 「三星」頭角…量産時代로
70年代初 大宇 급상승

財閥이란 무엇인가. 흔히 돈많은 억만장자를 재벌이라 부르지만 경제학교과서에 기술된 재벌의 정의는 「재벌은 정치권력과 밀접한 관계에 있고 국가권력의 비호아래 생성발전한다. 재벌은 독점자본에 의한 家父長的 기업집단이다. 재벌은 콘체른형 독점체이다. 재벌은 외국의 거대독점체와 밀접히 연결되어있다」

이런 정의에 충실하다보면 금방 분위기가 살벌해진다. 그래서 통념적으로는 系列企業群을 거느린 企業集團을 재벌이라 부른다.

財閥의 원산지는 東洋이다. 재벌하면 흔히 美國의 거대기업이나 그리스의 억만장자를 연상하지만 그것은 오해다. 원산지는 동양, 日本에서 전형적으로 발달되었다. 三井, 三菱, 住友, 安田, 野口…日本제국주의 세력의 비호아래 생성발전한 콘체른형독점체들이다.

이땅에 재벌이 처음탄생한것은 해방이후의 일이다. 48년 정부수립을 전후해서 웅장한 모습을 드러낸 泰昌이 한국재벌의 효시를 이룬다.

泰昌그룹의 총수 白樂承은 정계에도 손을뻗었다. 李承晩박사가 敦岩莊에서 梨花莊으로 옮길즈음부터 거액의 정치헌금과 아울러 매월 50만원씩을 생활비로 지원했다. 그것이 인연이 되어 泰昌은 鐘淵企業(朝鮮機械)을 인수하고 紅蔘 일수판매권(大韓文化宣傳社)을 획득하는가하면 殖産銀行에서 거액의 弗貨자금을 융자받아 泰昌紡織을 일으켰다.(현 邦林방적) 정부수립직후인 48년 당시 泰昌그룹이 거느린 계열기업은 泰昌工業, 海田직물, 朝鮮기계, 泰昌직물, 泰昌방직, 大韓文化宣傳社등 다채로운기업활동을 전개했다. 白씨一家는 정치바람을 등에업고 개국이래 최초로 재벌의 스타덤에 올라섰던것.

6·25로 산업시설은 몽땅 잿더미로 날려버렸다. 다시 맨주먹으로 시작할수밖에 없었다.

이때 귀속재산불하, 식어가는 밀수경기와 더불어 致富수단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것이 원조불하. 특히 6·25와함께 밀물처럼 밀려들어온 원조불의 배정은 매우중요한 역할을 했다. 당시에는 달러를 딴다는 말이 유행될정도. 달러를 딴다는것은 곧 致富의 직코스였고 그런만큼 달러를 따기위해서는 아슬아슬한 정치곡예가 필요했다.

南鮮物産(金元圭) 美進商社(李年宰) 新韓産業 榮東企業 中央交易등이 활약하던것도 이때의 일이다. 원조달러는 서서히 이땅에 소비문명을이식시켰다. 朝鮮紡織, 金星방직, 大韓제분…. 솜한 제분, 제당, 면방, 시멘트회사들이 일어났다.

이때 상업자본을 재빨리 산업자본으로 전환한 사람은 남보다 한발앞서 달릴수있었다.

무역업에서 지반을 굳힌 三星物産(李秉喆)은 재빨리 제일제당을 세웠다. 여기서 번돈으로 제일모직을 설립한것이 또다시히트. 어느틈엔가 三星엔 재벌칭호가주어졌다. 한국기업사상 두번째 재벌이 탄생한것.

三星의 성공사례는 많은 기업인에게 깊은 감명을주었다. 제일제당이 설립되는것과 때를같이해서 많은 기업이 일어났다. 樂喜化學, 大韓紡織, 三養제당, 東洋시멘트등이 이때 일어났다.

한편 戰災복구경기를 타고 건설업이 기지개를 펴기시작했다. 現代건설, 大林산업, 東亞건설, 中央産業, 極東건설등은 50년대 건설시장을 독점한 건설회사들이다.

50년대를 결산할때즈음은 벌써 韓國財界에 10대재벌이 군림하고 있었다.

60년대에 접어들면서 4·19, 5·16으로 이어지는 혼란기가 다가왔다. 특히 5·16이후 재계는 부정축재파동을 겪기도했다. 그러나 경제개발계획이 시동하면서 사태는 다시 일전됐다.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사회에 뛰어든 재계는 무한하게 열려진 프런티어를 보고 새로운 전개를 가다듬기 시작했다.

◇재벌들은 자리를 만들어 내는 기계다。 일자리와 좋은자리 높은자리를 계속 만들어 낸다。 자리를자꾸만들면서재벌은팽창한다。

◇50大재벌총수의 身上明細

순위	그룹명	대표자	나이	학력	종교	취미
1	現代	鄭周永	66	松田小學校		골프 독서
2	럭키	具滋暻	62	晋州師範學校	유교	낚시 사냥 원예
3	三星	李秉喆	71	日早稻田大專門部經濟科		독서미술품수집
4	鮮京	崔鍾賢	51	서울大美위스콘신大化學科	기독교	골프
5	大宇	金宇中	45	延世大 政經大經濟科	기독교	
6	雙龍	金錫元	36	美브랜다이스大經營學科	불교	스키
7	曉星	趙洪濟	75	日東京法政大經濟學部		골프 바둑
8	國際商事	梁正模	60	釜山公立工高	불교	골프
9	韓進	趙重勳	61	高麗大經營大學院	불교	운동 독서
10	大林産業	李載濬	64	軍浦公立普通學校	불교	골프 바둑
11	韓國火藥	金昇淵	31	美드폴大국제정치학과	천주교	독서 테니스
12	東亞建設	崔埈文	61	南滿洲工業學校		
13	롯데	辛格浩	59	日早稻田大		바둑 골프
14	코오롱	李東燦	59	日早稻田大		바둑 골프 낚시
15	錦湖	朴仁天	80	羅州普通學校	불교	바둑
16	大韓電線	薛元亮	39	서울商大商學科	불교	골프
17	三美社	金顯哲	31	美위싱턴大	기독교	골프
18	斗山	朴容昆	49	美위싱턴大商科大		골프
19	東國製鋼	張相泰	54	서울農大農學科	불교	등산 골프
20	韓一合纖	金翰壽	59	日大阪比花商業學校	불교	독서
21	起亞	金相汶	54	京城經濟專門學校		낚시 수영
22	漢陽住宅	裵鍾烈	43	延大經營大學院		
23	미원	林大洪	61	裡里農林學校	기독교	등산
24	해태	朴健培	33	美뉴욕大		
25	東洋시멘트	李洋球	65	京城商工學校		
26	大農	朴龍學	66	元山公立商業學校	기독교	골프
27	三養社	金相鴻	57	普成專門學校商科		골프 독서
28	三煥企業	崔鍾煥	56	建國大政經大		테니스
29	泰光産業	李壬龍	60	日名古屋商井實業學校		골프
30	東部	金俊起	39	高大商大經濟科		독서
31	忠紡	李鍾聲	57	京城法學專門學校		
32	朝陽商船	朴南奎	61	密陽農蠶學校	불교	골프
33	盛昌	鄭泰星	82	大邱農林學校	기독교	
34	三湖住宅	趙奉九	62	善隣商高	불교	골프
35	태화	申今奉	72	서울職業學校	기독교	
36	太平洋化學	徐成煥	58	國際大法政學部	불교	골프
37	韓國生糸	金智泰	73	釜山公立商高	불교	바둑
38	碧山	金仁得	66	高大經營大學院	기독교	독서 골프
39	進洋	梁圭模	38	서울大 文理大 社會學科	원불교	수영
40	眞露	張翼龍	46	서울大 工大 機械科	기독교	골프
41	造公	南宮鍊	65	日本大 經濟學部		
42	江原産業	鄭寅旭	69	日早稻田大理工學部		등산
43	東洋化學	李會林	64	高大 經營大學院	불교	골프
44	永豊	張炳希	72	沙里院公立農業學校		독서
45	三都物産	金萬重	63	釜山第二公立商業學校	불교	골프
46	韓國合板	高判南	69	群山公立商業學校		골프 바둑
47	全紡	金龍周	76	釜山第二公立商業學校	천주교	골프 여행
48	韓一시멘트	許준卿	66	高大法科大法學科		골프 등산
49	韓國유리	崔泰涉	71	定州五山學校	기독교	산책
50	海成産業	段泗川	67	海州高等普通學校		골프

이밖에도 전반적인 호경기무드에 실려 斗山(朴斗秉), 錦湖(朴仁天), 韓國유리(崔泰涉), 롯데(辛格浩), 東國製鋼(張相泰), 起亞産業(金喆浩), 三美社(金斗植), 漢陽(金味元), 林大洪, 東國製鋼, 韓一合纖(金翰壽), 豊國(金鍾喜), 江原産業(鄭寅旭) 등이 큰재미를 보았다.

「황금의 개발10년」이라 불리던 60년대가 지나고 70년대에 들어서면서 財界는 다시 급속도로 개편되기 시작했다. 기존위계질서가 무너지고 新興財閥이 일어섰다. 創業世代가 사라지고 2세의 등장과 함께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70년대초입에서 무섭게 新興재벌 大宇(金宇中)가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이어 栗山(申善浩)·制世(李彰雨)·元企業(元吉男)의 부침이 재계를 떠들썩하게했다. 70년대 중반에 들어서는 종합상사의 등장과 中東건설붐 그리고 중화학진흥러시가 오버랩되면서 재계는 다시한번 요동하기 시작했다. 건설업체가 일급재벌로 부상하고 중화학이 되고있다. 특히 종합상사제도의 도입은 재계판도를 크게 바꾸어놓았다.

재계가 황금광맥을 찾으며 한참 들떠있을때 소리없이 재벌의 성좌에서 사라져간 기업도많다. 新進·三護·聯合鐵鋼·元豊·和信·東明木材…. 벌써 흘러간 星座가 되어버렸다.

韓國財閥史는 1세대가 많이 물러나고 새로 바야흐로 80년대가 전개되고 있다. 운 역사의 장이 펼쳐지고 있다.

【朴炅鎭기자】

富는 貴重한것이나 집착할것은 못된다

財閥의 총수는 말한다

<럭키그룹會長>
具滋暻

버는일 중요하나 잘쓰는일 더重要
다만 일구는길은 「근검절약」에

이제까지 나는 돈이라는 것이 사람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될 대단히 소중한 것이라고는 생각했지만, 돈만을 좇고 그것에 얽매이면 사람답게 산다는 더 큰 가치마저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점을 잊어본 일은 없다.

곰곰 따져 보면 이런 생각은 서부 경남지역의 전통적인 儒林사회의 관념에서 영향을 많이 받은것 같은데, 이를테면 우리 가문에서는 옛날부터 절약하고 돈을 착실하게 모으기는 하지만 그렇게 모은 돈의 위력을 함부로 다루지는 않았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돈을 쓰는 면에 더욱 신경을 썼다. 돈을 낭비하고 천하게 쓰는 것을 우리집에서는 가장 큰 악덕중의 하나로 여겨 왔다.

돈과 그밖의 인간적인 가치를 엄격하게 갈라서 생각하는 家風속에서 형제간에도 돈에 관한 한은 극히 합리적으로 그리고 냉정하게 처리하는데 그대신 우애는 우애대로 돈독히 유지하면서 人和의 지혜를 터득해 왔다.

선친이 具仁商會를 차리고 처음으로 장사에 손을 대시게 된것은 유림의 일부에 은연중에 퍼져 있는 實學사상과 개화초기 청년들의 개혁사상이 잘 어울려 경제활동이라는 새로운 세계에 뛰어 드시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들고 그가치를 점차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된것이라 하겠다.

내가 집안의 사업에 참여하게 된것이 1950년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훈장노릇을 하고 있었다. 사업하는 집안이니까 으레 너도 거들어야 된다는 주위의 권유같은 것은 없었고, 나자신 애써 그쪽에 어들었다. 이후로 내나름대로 사업에 힘을 쏟게되고 그러는 가운데 경제가 무엇이고 또 그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차츰 깨닫게 되었다.

꼭 필요한 물건을 싼값으로 만들어 제때 내놓는다는 것이 사업하는 사람들의 얼마나 중한 임무인가, 나아가 이나라 경제발전에 두루 도 얼마나 보탬이 되는지 그런중요성을 몸으로 느끼게 된것이라 하겠다.

선친께서 돌아가시고 내가한기업群의 책임자 자리를 맡은 것이 1970년 정월이었다.

이때부터 나는 물려받은 기업의 꾸준하고 더큰 발전을위해 애써오면서 사업을통한 富의축적, 이익의 도모라는것이 기업의 일차적인 목표가되기는 하지만 종업원의 복지라든가 주주에대한 배당 그리고 사회를위해 이모저모 기여해야한다는 등등 결코 소홀히 할수는 없다는것을 절실하게 느껴왔다.

바꾸어말하면 기업활동이라는 것이 돈을 벌가위한 노력이긴하나 그 덩치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을만큼 차츰 커지다보면 기업을 어떻게 발전시켜 사회에 공헌토록하느냐의 쪽으로 관심이 바뀌어간다는 말이 되겠다.

일정한 자본을 토대로 해서 그것을 증식해 불려나가는 적극적인 부의 형성을 가리켜 흔히 돈이 돈을 번다는 표현을 쓴다. 그러나 기업에 종사하고 재계에 몸담아 오면서 나는 수단과방법을 가리지 않고 마구 돈을 벌어야겠다는 근검절약하여 아끼면 저축한다는 가운데 부는 절로이루어진다는 다분히 소극적인 관념, 그러나 오래도록 우리 몸에 배어있는 진리를 더욱 철칙으로 일깨웠다.

『푼돈을 아껴라, 그렇게해서 목돈이 되면 옮고 큰 목적에 써라, 저축은 돈이 있을 때 아껴 쓴다는 의미에서 나는 오래전부터 부를 옮게 다스릴 수 있는 인간적인 가치를 더욱 소중히 생각한 것은 부는 귀중한 것이지만 집착할 것은 못된다.

쓰는 것이지 없을 때는 아껴 것도 없다』고 나의 선친께서 평소 일러주시더니 그말씀은 날이갈수록 나로 하여금 「근검절약만이 부를 일구는 제일의 지름길이라 차분히 일깨워 주고있다.

기업은 돈과 시설재, 그리고 노동이 잘 결합되고 시장과의 긴밀한 관계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할 적에 돈이나 시설은 기업의 노력여하에 따라 필요한 만큼 비교적 손쉽게 마련할 수 있지만 기술과 노동의 주체가 되는 사람이다.

사실 부라고 하면 곧 돈을 일컫게 마련이지만 이제는 기술이라든가 경영이라든가 또 이를 다루는 사람의 가치가 돈의 가치이상으로 더욱 존중되는 그런 풍토가 이루어져도 좋을 상식에 온것같다. 우리에게는 五福이란 개념이 있는데 부는 복을 키워주는 부이 있을때 비로소 옳은 부가 되는 것이다.

기업을 맡아 경제와 호흡을 같이 해온 30여년을 돌이켜 보면서 나는 돈이나 소득내지 재산의 축적으로서의 부라는 것은 일정한 수준의 욕구를 충족하는데 불가결의 수단이라서 어느 정도까지는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이상의 것은 방탕해서 버리다시피 하지 않으면 아무도 어떻게 쓸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死藏에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돈이나 부를 잘관리할 수없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부담이되면 되었지 그이상의 아무것도 아닌것이다. 그래서 부는 사람의 노력에 따른 결정이요, 혜택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어느기간동안 바르게 관리할대상일뿐이 지 어차피 언젠가는 여러 제도ー를 통해 사회로 되돌아가게 마련이다.

기업도 그중의 하나이지ー를 통해 사회로 되돌아가게 마련이다.

트럭·列車충돌
건널목서 펑크, 車體박살 셋重傷

【光州=聯】 22일 하오7시15분께 전남和順郡綾州面白鶴里 철로건널목에서 光州구백룸소속 전남7사1211 5화물트럭(운전사 鄭龍浩·34)과 光州열차사무소소속 901완행열차(기관사 朴在洪·53)가 충돌, 트럭이 크게부서지고 열차승객 張鍾雄씨(57·전남和順郡和順邑三川里64·3)등 3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날사고는 光州에서 통나무를 싣고 寶城으로가던 트럭이 건널목을 지나면서 오른쪽 뒷바퀴가 펑크, 정지해있는 순간 寶城발 光州행 완행열차가 2백m 전방에서 이를 발견, 급제동을 했으나 멈추지못해 일어났다.

사고현장에는 트럭에 실었던 통나무가 모두 철로위에 떨어져 뒹구는 바람에 光州·寶城간을 운행하는 각종열차가 2시간동안 통행을못했다. 사고난 운행열차승객 1백50여명은 이날 하오8시45분께 光州열차사무소에서 임시로 사고지점까지보낸 완행열차에 의해 하오9시30분께 光州역에 도착, 귀가토록했다.

경찰은 화물트럭운전사 鄭씨와 기관사 朴씨등을불러정확한사고원인을조사중이다.

平和統一 諮問회의 宗教·女性分委선정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는 23일 종교분과위원회(위원장 趙香祿, 간사 崔龍煥)와 여성분과위원회(위원장 姜映淑, 간사 朴貞淑)위원을 선정, 발표했다.

宗敎分委 ▲俞虎濬(기독교지도자협의회장) ▲成檀基(조계사상임포교위원) ▲黃成性(천주교대전교구장) ▲吳益濟(천도교종부원장) ▲趙顯相(유교성균관부관장) ▲全在煥(성결교회재단이사장) ▲孫仁實(YWCA연합회장) ▲李連興(불교태고종종의부의장) ▲鄭晋慶(성결교회총회장) ▲金俊坤(대학생선교회한국대표) ▲金益洙(원불교이사장) ▲金仁得(기독교실업인회장) ▲朴贊度(교구청교구설정기념사업계획총무) ▲孫永漢(천주교사목위원) ▲崔泰涉(기독교실업인회 이사) ▲李敏載(강원대총장) ▲吳昌均(조계종신도회부회장) ▲李相殷(천주교평신도사도회장) ▲李炳益(기독실업인회부회장)

女性分委 ▲高凰京(서울여대이사장) ▲金樂禎(이대교수) ▲金玉烈(숙대총장) ▲朴京子(성신여대교수) ▲金仁子(서강대교수) ▲李蓮儀(경기여고교장) ▲沈春愛(무학여고교장) ▲李英淑(성경제인회장) ▲金順子(간호협회부회장) ▲李露卿(의사) ▲安英英(인천시의사회장) ▲千鶴子(화가) ▲毛允淑(시인) ▲黃貞順(연예인) ▲趙貞順(연식정구협회장) ▲金金檀(성원가구공예대표) ▲朴金淳(한국부인회회장) ▲安牧丹(전통국경미망인회장) ▲趙允淑(용신성유대표) ▲李銀淑(약사) ▲羅昭苑(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이사)

文化短信

화학공학회 총회서 金相敦박사 學術賞

한국화학공학회는 23일 상오10시 春川 강원대에서 열린 추계총회(회장 金英傑)81년도 학술상(사진)이 수상했다. 金相敦박사(사진·한국과학기술원)가 올해 학술상을 수상했다.

流星의 賦 <216>
李炳注 作
李友範 畵

秋風何處至 ⑭

그날의 승자(勝者)는 당연히 최금용이었다. 차승(次勝)은 역시 황해도 황주의 원도석(元道錫), 제삼승(第三勝)은 나주의 신연석(申延錫)。 일등상은 삼십냥, 차승은 20냥, 3승은 10냥이었다. 그리고 점수에 따라 한 다섯냥으로부터 한냥까지 두루 시상(施賞)이 있었다.

참석해 주었다는 감사만으로 흩게남에게 은으로 만든 반합(飯盒)과 대접, 문정복, 백석환에겐 각각 은수저 한벌씩을 선사했다.

그날 밤의 잔치는 더욱 성대했다. 그자리에서 지함두가 이런 소릴 했다.

『물이 썩어있으면 물고기가 살지못한다. 공기가 썩어있으면 날짐승이 살지못한다. 땅이 썩어있으면 맹수도 살지 못한다. 오늘 이자리에 모이신 영웅 젊사들을보니 이런 감회가 드는군요.』

방연령의 말이 있었다.

『썩은 물은 퍼내고 맑은물로 바꿔야 할 것이며, 썩은공기는 청풍으로 쫓아야할 것이고, 썩은땅은 불로 태워 새땅을 만들어야 할것이 아닌가』

『천지지간에 유인이 소귀(所貴)하거늘 뜻이 있으면 어찌 통하지 아니 하리오。 청수(淸水)、청기(淸氣)、청토(淸土) 삼청(三淸)으로 우리 동지가 되시단』

『와야』하고 일각에서 환성이 일었다. 「지당 지당」 「가재 가재」「선재 선재」하는 소리가 자리를 꽉 채웠다.

이윽고 정여립의 말이 있었다.

『동지(同志)는 소결연(所結緣)이오, 결연은 천지소섭(天地所攝)、지지소리(地之所理) 인즉 이를…

좋이 여기면 운총이 있고, 이를 소홀히 여기면 금수와 같은 것이오. 내 인연을 소중히 하므로 영웅과절사를 이곳에 모을수 있었던 바이니 앞으로도 환(歡)이 있으면 서로 나누고 슬픔이 있으면 같이 슬퍼함이 있을것이오. 궁한 일이 있으면 나를 찾고, 힘을 빌 일이 있으면 나를 찾으시오. 여러분이 일이 있어 나를 부르면 불원천리 백두산상에까지라도 달려 갈 것이나 여러분 또한 나의 부름엔 지체하지 마시오. 충과 의를 위해선 일신을 돌보지 않는 것이 고래 사람된 자의 도리일 것이오. 앙얼만을 탐하여 징승으로 죽느니보다 장부 군자로서 포부를 펴다가 죽는것이 좋을 것이오. 그러나 충(忠)도 또한 청충(淸忠)이어야 하니 갈불위언(敢不爲言)이라도 알아들으실줄 아오』

여럽의 말이 끝났을 때엔 더욱 좌중이 숙연해졌다. 소란이 끝나고 조용하게 되었을 때 여립이 계남에게 「흥, 최금용을 제자로 해 주실순 없겠습니까」 하고 청했다.

『나는 누굴 제자로 하기엔 부족한 사람이오. 그러나 계남의 대답이 이러하자 정여립은 간절히 『꼭 그러시다면 이 근처라도 좋고 전주가 아니라도 좋사오니 거처를 만들어 최금용과 같이 기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소이다』 하고 환영했다.

『생각해 보지요. 그러기 전에 최금용과 애기를 나누고 싶소이다』

계남이 여립과 응수하고 있기가 번거로운 마음으로 되었다.

先史시대 石器展

서울大 박물관은 선사시대 석기전을 26일부터 11월7일까지 同박물관 전시실에서 연다.

이번 전시회에는 8·15전에 수집한 함경도지방의 출토품과 연천군 전곡리, 여주군 흔암리, 양양군 오산리에서 나온것등 구석기류 1백45점, 신석기시대및 청기시대 석기류 3백38점이 선보인다. 여기에 외국석기 2백70점을 곁들여 우리나라것과 비교할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오리엔탈·파레스

일요일 영업개시 오후 3 시부터
북경식 요리, 소고기 철판구이,
각종 홍콩식 요리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MR. CHOIS RESTAURANT

주중 : 월~수 낮12시~밤12시
목, 금 : 12시~밤1시
토 : 4시반~11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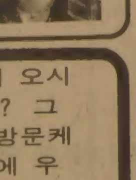
2432 Eglinton Ave. E. Scarborough
☎ : 759-8512
최 영 호

"아름다운 피부는 여인의 소망"

○ Mary Kay는 바로 여성의 젊음과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는 신비와 매력의 상징입니다. 특히 기미 여드름, 모공이 커서 화장에 자신없는 분, 부드럽고 탄력있는 피부를 원하시는 분에게 꼭 권하고 싶습니다.
○ 고국 방문을 하시는 분에게는 특별봉사 하겠으며, 주소가 변경되었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새주소 : 2 MEADOWGLEN PLACE
202 A, SCARB.
ONT M1G 2V6

(B) 438-6440 (R) 439-1335



각종 한약재 도매
보약조제및 상담

●우황청심환 ●우황 ●사향
●웅담 ●녹용 ●점주사 ●해구편

중국의사의 진료를 원하시는 분은 미리 시간약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偉信公司 KINGS IMPORTS
428 DUNDAS ST. W. TOR.
☎ : (416) 977-9818

一品香飯店

(짜장면등…)중국북방식
한국인 입에 알맞는 요리
특히 북경오리요리전문

1주일 내내영업(11A.M.~11P.M.)

393 DUNDAS ST. W.
☎ : 363-9527

CHINA ROYAL RESTAURANT

BIG SEVEN무역선물센타
(구 아세아선물센타)

●우황청심환, 녹용등
●각종 귀국선물 염가봉사

678 BLOOR ST. W. (고려식품 옆)
☎ : 533-7966 김 영 철

한국의 친척들중 카나다에 오시길 원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들을 당신과 당신가족을 방문케해서 모셔오십시오. 동시에 우리와 같이 영어를 공부하게 하십시요.
1976년 이후 전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공부했읍니다.
보다 소식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로 전화하십시요.

Canadian Language Institute
728 Bay St. Toronto, Ontario
M9G 1N5 ☎ : 598-0451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 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Downtown Office : (416) 537-6685
8AM-6:30P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삼미떡집2층)
★Willowdale Office : (416) 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거의 다가서임)
★평일 오후3시및 토요일에 오시는 분은 미리 전화주십시오.
★집전화 : (416) 222-9480

學資金·졸업脫落등 "걱정태산" 휴학大學生 부쩍 늘었다

新入生등 軍入隊도 急增

自習하며 정책 觀望派도

대학4년의과정을 계속하지않고 중도에서 학업을 일시중단, 졸업을 뒤로 미루려는 휴학생이 각대학마다 급증하고있다. 과외금지조치이후 대학생들의 학자금마련이 급격히어려워진 때문이라고 대학가에서는 풀이한다. 또 졸업정원제의 도입과함께 많은 신입생들이 중도탈락의 위험에서 우선 벗어나기위해 군입대의길을 택하거나 학교를 잠시떠나 자습을하면서 학사제도가 그간 바뀌지않을까 희망을 걸고있는등 여러가지 요인이 있는것으로 분석하는 사람이 많다.

◇대학생들이 휴학을 해야할 사정들이 늘어나고있는 모양이다。불경기로 부업얻기가 어려워졌고 졸업정원제와 이로인한 학사징계 강화조치는 학업계속을 과거보다 훨씬 힘든것으로 바꿔놓은것 같다 (2학기 高麗大등록창구에 줄서있는 재학생들)。

高大 작년보다 46%늘고 延大·梨大 사정비슷

지난 9월24일로 2학기휴학원접수를 마감한 延世大의 경우 일반휴학이 4백91명, 입대휴학이 1천3백99명등 모두 1천8백90명이 휴학을 해 전학기재학생 1만1천29명의 17%가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숫자는 1학기휴학생 1천7백36명 (일반휴학3백81명, 입대휴학1천3백55명)에 비해 8·9%가 늘어난 것. 전체적으로는 휴학생이 8·9%밖에 늘지않았지만 졸업정원제에 의해 입학한신입생의 경우는 3배이상으로 늘어난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학기 1학년의경우 휴학생이 1백45명인데반해 올2학기1학년중 휴학생은 4백77명으로 무려 3백29%나 증가했다. 전체 1학년휴학률도 지난해 신입생정원 2천7백43명의 5·3%가 휴학했으나 올신입생은 정원4천9백24명의 9·7%가 휴학, 거의 2배로 늘어났다. 졸업정원제에의해 신입생의 휴학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휴학생의 학년비율을 보면 그대로 드러난다. 이번학기 일반휴학생의 경우 전체 4백91명중 1학년생이 1백71명으로 36·8%를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입대휴학생까지 포함한다면 휴학생의 반수이상이 1학년이라는 설명이다.

高麗大는 올2학기에 일반휴학 5백33명, 입대휴학 6백17명등 모두 1천1백50명이 휴학을해 1학기 재학생 1만2천5백15명의 9·18%가 학업을 중단하고있다.

이숫자는 지난해 2학기의 일반휴학2백30명, 입대재적·미등록 5백60명등 7백90명에 비하면 무려 46%가 증가한것이며 일반휴학만으로 따지면 지난해2학기 2백30명에서 올2학기 5백33명으로 무려 2백32%가 늘어난것이다.

1학년휴학생의 비율도 지난해 2학기엔 24·4%로 다른학년과 고른분포를 보였으나 올2학기엔 39%나돼 1학년휴학생비율이 15%가 증가했다.

梨花여대도 지난해 2학기에 67명이 휴학을 했으나 올2학기에는 1백2명으로 늘어났고 그중 1학년생이 54명으로 전체의 53%나 차지, 1학년생의 휴학률이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또 西江大도 지난해 2학기휴학생수가 48명인데 반해 올2학기에는 4배가 넘는 1백96명이 학업을 중단했으며 2학기에 비해 휴학자가많은 1학기를 비교해봐도 지난해 1백87명에서 2백76명으로 42%가 늘어났고 1·2학기를 통틀어 2백35명에서 4백72명으로 2배이상이 늘어났다. 또 1학년생의 휴학보다 고학년생의 휴학이 두드러진 高麗大의 한관계자는 『과외금지조치이후 많은 대학생들이 학자금마련에 전전긍긍하고 있다』면서 『불경기가 계속돼 부업자리도 쉽게구할수 없는 형편이기때문에 많은 시골대학생들은 아예 학교를 쉬면서 학자금을 마련하고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들은 『졸업정원제에 의해 탈락될것으로 예상되는 학생이 일단 휴학계를 내는 경우도 많다』고 털어놓고있다.

한편 문교부가 집계한 과외금지조치이후 대학생부업실태를 보면 전국 89개대학 재학생 44만5천6백65명중 8·4%인 3만7천4백36명이 올해 부업알선을 희망했으나 실제 일자리를 구한 학생은 이중 38·4%인 1만4천3백64명에 불과한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이 구한일자리도 지난날의 과외수업보다는 4~5배의 시간을들여 수입은 월8만5천원으로 과외수입의 절반밖에 안되는것으로 분석됐다.

【方敬俊기자】

全南大등도 急增

【光州=聯】전남대와 조선대등 지방학생들의 휴학도 올들어 부쩍 늘고있다.

23일 전남대에 따르면 지금까지 휴학한 학생은 모두 3천7백39명으로 전체학생 1만6천4백85명의 22·7%를 차지하고 있다.

조선대의경우 올들어 휴학한학생은 모두 2천7백17명으로 작년보다 4백27명이 늘어났는데 학년별로는 3학년이 1천62명으로 가장많고 2학년 6백47명, 4학년 6백26명, 1학년3백82명이다.

霜降추위에 늦가을 "꽁꽁"

中部등 零下로…채소 冷害클듯

牙山12㎝·天安11㎝ 함박눈도 내려

가을철에 난데없이 함박눈이 내리고 수은주도 영하로떨어지는등 기상이변을보였다. 한파통보가 내려진 가운데 霜降인 23일 서울·충북·호남지방에 예년보다 한달빠르게 첫눈이 내렸고 水原·春川·大關嶺·蔚珍지역은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다. 특히중부전선 黃岳山은 영하14도를 기록하는등 전방고지에는 모두 영하10도이하의 강추위가 몰아쳤다.

서울지방의 기온은 예년보다 5도5분이나낮은 0도6분이었으며 水原과春川은 영하1·6도로 예년보다 6도나 낮았다. 이날 첫눈은 淸州·牙山·天安등지에서 상오7시께 부터 간간이 날리던 눈발이 함박눈으로 변해 낮12시현재 牙山12㎝·天安11·5㎝·大田10㎝·淸州4·5㎝의 적설량을 보였고 漢拏山과智異山에도 2㎝의 눈이쌓였다.

기온도 예년의 경우 서울등 중부지방은 10월28일을전후해 첫얼음이 얼었으나 올해는 1주일가량 빨랐다.

중앙관상대는 이번 한파는 몽고지방에서 발생한 한랭한 대륙성고기압의 영향 때문이라고밝히고 서울 중부지방은 24일 최저기온이영하4도, 25일은 영하5도까지 내려가겠다고 예보했다.

관상대는 그러나 25일하오부터는 대륙성 고기압의세력이약화, 차차 기온이풀려 예년기온을 되찾을것이라고 내다봤다.

24일 예상최저기온은 春川·水原이 영하4도, 淸州영하3도, 大田·大邱0도로 내려가고 25일은 春川 영하5도, 水原·淸州영하4도, 大田영하3도, 서울0도.

이번 한파로 강원·충북·경기지방의 채소단지는 김장용채소가 냉해를입어 10~20%의 감수가 예상돼 재배농가들이 울상을 짓고있다.

충남天原郡은 23일상오9시 때이른 폭설이 내리자 민방위대원 5백여명을 동원, 추수가 덜끝난 3백60㏊의논에서 벼베기 작업을 벌였다.

또 민방위대원들은 과일을 따내지 못한 70㏊의 과수원에서 만생종과일을 따내는일도 도와줬다.

한편 첫눈이내린 漢拏山정상 부위에는 눈꽃이피어 절경을이루고있는데 漢拏山국립공원사무소는 등반객이 몰릴것에 대비, 주요등산로에 산악안내대원을 배치, 안전사고예방에 나섰다.

한편 중앙관상대는 23일하오1시를기해 남해동부해상에 내렸던 폭풍주의보를 해제하고 울릉도·獨島부근에 내린 폭풍경보를 이날정오를 기해 폭풍주의보로 대체한다고 발표했다.

23일 지역별 최저기온은다음과 같다.

서울 0·6도▲仁川 1·4도▲水原 영하1·3도▲春川 영하1·3도▲瑞山 2·6도▲大田 1·8도▲淸州 0·3도▲束草1·0도▲江陵 1·6도▲大關嶺 영하6·1도▲蔚珍영하1·8도▲鬱陵島 3·9도▲群山 2·8도▲全州 2·4도▲光州 2·9도▲木浦 5·8도▲麗水 5·5도▲濟州 8·3도▲西歸浦 8·2도▲秋風嶺 0·7도▲大邱 2·7도▲浦項 3·3도▲晋州 3·6도▲忠武 6·3도▲釜山 4·6도▲蔚山 3·8도

◇전방고지▲黃岳山=영하14도▲香爐峰=영하12도▲大成山=영하10도▲白石山=영하10도▲白鶴山=영하9도▲紺岳山=영하9도▲大愚山=영하8도▲金鶴山=영하8도▲赤根山=영하6도▲乾鳳山=영하6도▲白岩山=영하11도

서울體育中學 設立승인 來年개교

문교부는 23일자로 서울체육중학교(공립)의 설립을 승인했다.

『88서울올림픽』개최와관련, 체육특기자 조기발굴 및 육성을 위해 내년 3월1일 개교하는 서울체육중학교는 江南區잠실의 현 체육고등학교 구내에 병설된다.

이 학교는 한학년당 1학급(60명) 씩인데 앞으로 육상·체조·수영등 기본종목을 집중육성할 계획이다.

獎學金 극빈자優先 서울大, 生活보조도

서울大는 23일 성적이 우수하면서도 집안이 가난한학생을 지급대상으로했던 장학금지급기준을 바꿔 극빈자에게 우선적으로 등록금전액은 물론 생활보조비까지 지급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성적이 평균4·0이상인 학생에게는 무조건 장학금을 지급해주기로했다.

한국選手團 2位

東京장애자技能대회 日綜合우승

【東京=兪晴錫기자】지난21일부터 3일동안 일본에서벌어진 국제장애자 기능경기대회에서 한국선수단(17명)은 17개 경기종목에 출전, 금메달1개、은메달4개、동메달 5개등 모두 10개의 메달을 따내 종합순위 2위를 차지했다。

주최국인 일본은 금11、은12、동8개등 31개의 메달을 따 종합우승 했다。

3위는 금2개와 동메달1개를 따낸 자유중국。

한국船員 8명失踪

印尼선박 突風에 침몰…2명은 劇的구출

롬보크海峽

【釜山=聯】지난 17일밤 인도네시아의 롬보크해협에서 돌풍을 만나 침몰한 인도네시아 소속 피·티·다야구나·사무데라회사소속 선온(SUNON)2호 (선장 李奉春·34)에 타고 있다 실종된 10명의 우리나라 선원 가운데 1기사 崔春玉씨(37)와 신원미상1명등 2명은 나무토막을 잡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으나 선장 李씨등 우리나라 선원 3명과 인도네시아선원 10명은 23일상오현재까지 실종돼생사를알수없다.

침몰한 선온2호는 지난10일 인도네시아 그래식 항을 출항, 2개월 예정으로 조업에나섰다가 그물을 끌어올리는 양승기 모터고장으로 그래식항으로 되돌아오던중 17일밤 갑작스런 돌풍을 만나 침몰했다고 생존자 崔춘옥씨가 사고경위를 서울본사에 타전해 왔다.

崔씨에 따르면 사고가난 17일밤 나무토막을잡고 헤엄쳐 18일상오 롬보크섬에 상륙, 현지 주민에의해 구조되었으나 언어가 통하지않아 이민국에 연락, 21일하오6시 자카르타에있는 피·티·다야구나·사무데라본사와 연락, 한국본사로 이같은사실을 타전해온것이다.

공사2重契約…하자保證金 詐取혐의

閔有東씨(前忠南도지사) 拘束

서울永登浦경찰서는 23일 前忠南도지사 閔有東씨(58·서울銅雀區上道洞210의17)를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閔씨의 동업자인 朴茂光씨(39·서울銅雀區 舍堂1洞419의74)를 같은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의하면 閔씨는 지난해12월 朴씨와함께 고압가스기계 제작회사인 창욱금속주식회사를 설립한뒤 지난7월14일 경남昌原기계공단 2단지에 공장을 신축하겠다며 세일건설 대표이사 黃善萬씨(49·서울銅雀區 鷺梁津洞205)와 14억원에 공사계약을 맺고 하자보증금조로5천만원을 받아챙겼다는것이다。

閔씨등은 지난해12월과 지난2월에도서울건업진흥주식회사동 건설회사에『공사도급을 주겠다』며 하자보증금으로 2천만원을 받았었는데 이때 자본금과 건축비용등이없어 공사가 10%밖에 진척되지않자 건축업자들에 의해피소돼 재판에 계류중이었는데 또다시 黃씨에게 공사를 계속할수있다고 속여 2중으로 공사계약을맺고 하자보증금을 받았다는것。

「금복주」社長집 深夜폭발事故

私製터져 경비원傷害 협박電話 직후에

反共연맹 慶北지부장겸해 怨恨등 多角수사

【大邱=聯】금복주사장 金泓植(55·반공연맹경북지부장)집에 의문의 폭발물사고에이어 협박편지가 날아든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10일하오 10시20분께 大邱中區三德洞2街29의5金씨집 정문앞에서 사제폭발물이 터져 경비원 김종규씨가 오른쪽손에 상처를 입었으며 목제대문이 가로10㎝, 세로80㎝가량 파손됐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당일밤 10시15분께 金씨집으로 전화가 걸려와 金씨의 딸 경순양(23)이 전화를 받자 『여기 시경인데 金泓植이를 바꿔라』고 말해 『아버지가 없다』고 하자 『폭탄이 터져도 바꾸지 않겠느냐』는 말에 金씨에게 전화를 바꾸어주었다는것.

범인은 金씨가 전화를 받자 『폭탄장치해둔 것을 아느냐? 제2공장폭발사고를 아느냐, 나는 대한상사 김중근이다』고 말해 金씨가 『밤늦게 왜 장난전화를 거느냐』면서 전화를 끊은뒤 1분가량 지난후 金씨집뒷마당에서 펑하는 폭음과 함께 폭발물이 터지는 소리가 들렸다는것。

이와동시에 경비원 金씨가 대문을 여는 순간 대문에서 또 폭발물이 터져 金씨의 오른쪽손에 파편이 박히고 목제대문이 부서졌다。

金씨가족들은 이사고가 발생한뒤 자체조사를하던중 지난21일 19일자 遠城우체국소인이 찍힌 협박편지가 날아들었는데 붉은색 사인펜으로 또박또박 쓰여진 이편지에는 『지금부터 시작이다。파멸의 구렁으로 대진격이다。얼마든지 피해보라。어디든지 따라갈것이다。한스런 칼날을 피할수있겠는가』라는 내용을 담고있었다。

경찰은 金씨집에서 폭발물 파편 19조각과 건전지약·구부러진 수도꼭지등을 수거、폭발물의 종류를 조사중인데 이 폭발물은 상수도 꼭지에다 화약·건전지등을 사용해 만든 사제폭발물로 인명살상의 위력까지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경찰은 이날 수사전담반을 편성、金씨와 원한관계에 있는 사람의 소행으로 일단추정、金씨 주변인물들을비롯、최근 회사를 그만둔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범인수사에 나서는 한편 金씨가 반공연맹 경북지부장이라는 점으로 미뤄 대공적인 측면에서도 아울러 수사를 펴고있다。

低質연탄 助燃劑 "特許내준다" 詐取

書類도 가로채 자기名義로

서울지검형사1부 鄭秉燮검사는 22일 서울龍山區厚岩洞142의237 신덕자원개발대표이사 金壽成씨(52)를 사기및 특허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의하면 金씨는 지난77년12월28일 특허청에 저질연탄조연제 발명특허를 출원하고있던 강길훈씨에게 『관계공무원에 얘기해 특허를받도록 해주겠으니 동업하자』고 속이고 접대비조로 5만원을 받은것을비롯 모두56차례에걸쳐 1백95만여원을받아 가로챘다는것이다。

金씨는 또 강씨에게 『동자부차관에게 부탁하려면 나도 조연제제법을잘알아야한다』면서 강씨에게서 제법을 배운다음 강씨의 특허원이 기각되자 79년6월25일 자신명의로 특허원까지 냈고 특허청이 그특허원에대해 보정명령을 내리자 기각된 강씨의 특허원에 첨부됐던 시험성적서를 빼내 강씨의 인적사항란을 백지로 가리고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 복사한 시험성적서를제출, 지난해9월29일 자신명의로 특허까지 받았다는것이다。

統一敎主 文鮮明씨 美法院서 無罪주장

【뉴욕22日聯=聯】미국정부로부터 탈세혐의를 받고있는 통일교교주 文鮮明목사(61)는 22일 뉴욕의 미연방지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통일교신도 수백여명이 지법건물밖 공원에서 文목사의 결백을 주장하는 시위를 벌이는 가운데 이날 열린 심의에서 文목사는 통역을 통해 『나는 결백하다』고말했다。

國校生영어敎育 特活허가방침

李문교밝혀

李奎浩 문교장관은 23일국민학교생들의 영어교육에 대해 正體性의문제、시설과 與件의 문제가 있다면서 『순수한특별활동으로 피아노나 바이얼린을 배우는식으로 허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李장관은 이날하오 국회文公委에서 『대학생들이 국교영어교육을 말도록한 용의가 없느냐』는 辛相佑의원 (民韓)등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표주박

履歷書조작 獨語교수로 就業 버젓이 講義하다 뒤늦게들통

○…慶北도경은 23일 대학선배의 이력서에 자신의 사진을붙여 대학교수로 취업、강의를 해온 大邱모대학 독어독문과 부교수 金昌浩씨 (38·大邱市南區鳳德2洞219)를 사문서 위조및동행사등혐의로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金씨는 지난2월 서울모대학 조교수를지낸 대학선배 鄭모씨(43)로부터 大邱모대학 부교수로 취직하기위한 관계서류를 구비해달라는 부탁을받고 鄭씨의 이력서등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이 대학에 제출、부교수로 채용돼 독어독문학과에서 강의를 해왔다는것。

○…지난62년 모대학 독어과를 졸업한 金씨는 그동안 소설을 쓰고 독일어 번역을 해왔기 때문에 전혀 의심을 받지않고 강의를 할수 있었다。그러나 金씨는 대학측이 문교부에 교수승인을 신청하기위해 지난달 28일 鄭씨의 본적지로 신원조회를 의뢰했다가 위장한 사실이 확인돼 발각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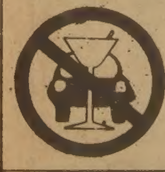
肢體부자유 어린이위한 KBS교향악단 音樂會

KBS교향악단은 한국소년소녀 합창단과협연으로 26일 하오5시 국립극장 대극장 에서 「지체부자유 어린이를 위한음악회」를 연다。

세계장애자의 해를 맞아 개최되는 이번 음악회 (지휘·洪燕澤)에는 신체장애아 5백여명이 특별 초청되며 이익금의 일부는 「지체부자유아돕기 성금」으로 기탁된다。

레퍼터리는 롯시니의「빌헬름·텔」서곡과 김지연 (경기국교)、배상은양 (방배국교)의 비발디의 「2개의 바이얼린을 위한 협주곡」협연, 조은정 (바이얼린·한동국교)、이난경 (피아노·충암국교)、윤혜리양 (플룻·대성국교)의 바하의 「브란덴브루크협주곡5번」협연등。

이와함께 한국소년소녀 합창단의 동요모음곡(김희소편곡) 「반달」「퐁당퐁당」「꽃동산」「방울새」등 12곡이 발표되며 삼육재활원의 지체부자유아 김현숙양이 독창을 한다。



팝토픽

美의 映畵주제곡이 팝송가 頂上휩쓸어

★…영화주제곡이 미국 팝송가의 정상을 휩쓸었다。

캐시박스가 선정한 이번주 텐·톱·팝의 1위는 영화「아더」의 주제가인「Best that you can do」가, 2위엔「끝없는 사랑」이, 3위엔 007영화주제곡 「당신의 눈만을 위해」가 각각 올라있다。【AP】

꽃도매상
437 CARLAW ST.
☎ : 465-8167

♣♣♣♣♣ 토론토한인합창단 제6회 연주회 ♣♣♣♣♣

헨델 작곡 오라토리오 메시야대연주회

지 휘 : 박 재 훈
독창 : 이 정 애(쏘프라노)
배 정 숙(알 토)
옥 인 걸(테 너)
신 경 욱(바 리 톤)
합창 : 토론토한인합창단
찬조 : 토론토한인연합교회 성가대
박주 : 노스-욕 심포니 오케스트라
(하프시코드및 오르간 유회자)

후원 : 토론토한인교역자협의회
일시 : 1981년12월4일(금) 저녁8시
곳 : 메시·홀(178 VICTORIA, TOR.)
티켙 : $12.00(A), $9.00(B), $6.00(C)
예매처 : 토론토종교서관(535-1920)
전화주문 : 222-4662(MRS. KIM)

주 최 : 한 인 교 향 악 단

나의 이력서

윤치영 ⑯

〈題字·尹致暎〉

波動의 序幕

2년만에 복귀한 국회의 분위기는 우울하고 어수선하기 짝이 없었다. 釜山 武道館(도청대강당)에서 셋방살이를 한 戰時의 피난국회는 수용소보다 크게 나을것도 없었고 의원들의 생활도 말이 아니었다.

지금은 국회의원의 처우문제에 관심도 많지만 당시엔 나라가 累卵의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대우문제엔 모두가 超然했다. 형편이 좋은 사람들이 일부 지프를 타고 다닐정도였고 대부분 걸어다니기 일쑤였다. 셋방살이는 말할것도 없다. 한데서 잠자지 않는것이 그저 다행이었다. 그 찌들었던 시절, 국제시장을 종종 찾아가 먹던 장국밥의 그 기막힌 맛은 지금도 잊을수가 없다. 나와 같이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국회에 진출한 錢鎭漢은 툭하면 장국밥에 막걸리를 거나하게 걸치곤 했는데 취한김에 거리에서 時局論을 펴던 그의모습이 퍽 인상적이었다. 선거때 내가 만난 公州사람들이나 피난수도 釜山의 사람들이나 모두가 바라는것은 빨리 전쟁이 끝나 안정되고 먹고 살 터전을 만들었으면 하는 소망이었다.

그러나 政局은 국민의 소망과는 달리 戰時중인데도 혼란만 거듭했다. 국민의 생활에대한 관심보다는 政略과 利己와 모략이 앞섰고 폭력이 亂舞했다. 내가 국회에 복귀한 다음에 전개된 상황은 한심하고 울분을 자아내는것들이 대부분이었다.

국회안엔 지난해에 있었던 惡夢의 그림자가 채 걷히질 않은채 또다시 改憲파동이 일어나고 폭력이 난무하기 시작했다.

지난해의 惡夢이란 天人共怒할사건인 居昌良民학살사건과 어마어마한 온국민을 분노하게했던 國民防衛軍사건을 말한다.

바로 1년전인 51년2월중순에 있었던 居昌사건, 공비를 토벌한다던

國會、大統領직선제 改憲案을 부결

李博士옹립 自由黨胎動 與·野대결

軍大隊가 빨갱이소탕을 빙자해 죄없는 良民6백여명을 산골짜기、개천에 몰아넣고 집단학살한 天人共怒할 사건은 역사에서 영원히 씻을수 없는 汚辱이자 비극이다. 선량한 국민을 이럴수가 있는가.

그래놓고는 국회에서 조사단을 파견하자 공비를 가장해 조사단에 총을 亂射해 조사를 방해하기까지 했으며, 일부인사들에 의한 狂的인妄動은 바로 利敵행위였다. 이사건으로 당시 국방장관이던申性模、계엄사령관 金宗元으로부터 당시의 대대장 韓東錫등이 수사대상에 오른끝에 그해말 軍裁에서 金宗元대령 징역3년, 11사단9연대장 吳益均과 대대장 韓東錫소령이 무기징역을 받았으나 그후 이들은 모두 풀려나왔다.

李 대통령에게 『良民학살 사건은 전혀 근거없다』며 落淚를 하던 申性模국방장관은 국민방위군사건뒤 駐日대사로 부임했으니 人事가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게 아니었다.

居昌사건과 거의 때를 같이해 터졌던 방위군사건은 1·4후퇴로 놀란 가슴을 쳤던 국민들을 또한번경악케했다.

◇전쟁중인 1952년 政局은 정부改憲案부결, 居昌사건, 국민방위군 사건등으로 점차혼란에 접어들었다. 사진은 釜山近郊 難民수용소를 방문한 李承晩대통령내외. 左는 李瑄根국방부정훈국장, 중앙 (흰모자)이 申性模국방장관.

국토방위를 해야될 국민방위군사령부간부들이 幽靈병력을 12만명이나 늘려놓고는 군수물자와 軍糧米등을 부정처분해 장정들을 굶주림과 죽음에 몰아넣은 것이 국민방위군사건임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당시 군량미를 팔아먹은 게 2억여원이라지만 또 얼마나 많은 돈이 의혹속에 흘러 나갔는지는 수수께끼다.

국민방위군사건이 있은뒤 그해5월 李始榮 부통령이 정부의 갖가지 秕政에 항의하는 성명을 내고 辭任했다. 그때 野人의입장에서 政局을 관망해오던 나는 李始榮부통령의 사임소식을 듣고 몹시 가슴이 아팠다. 名門巨族임에도 일찌기 南滿洲에 가서 一家와함께 독립운동을 이끈 省齋선생은 上海臨政에서는 金九선생과 雙璧을 이룬 이민족 독립의 元勳이었다. 그는 또 청렴결백하고 강직한 분이었다.

그러나 省齋선생에겐 정부에서 설 땅이 없었다. 李 대통령은 그에게 「省齋丈」이라고 부르며 깍듯이 선배에 대한 예우를 했지만 정부에서 부통령이란 자리는 할 일이없는 「閑職」이었다. 나는 그분이 방위군사건이 아니었더라도 그분의 성격이나 여건상 물러나게 됐으리라고 생각한다.

내가 국회에 들어간 직후 釜山에서 「反民意」국회의원을 소환하라는 데모가 일어났다. 이 동원된 「民意」는 곧 정치파동의 태풍을 몰고 오는 신호였다.

이보다 한달 앞서 국회는 정부가 제안한 대통령直選-兩院制 改憲案을 부결시켰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국무회의에서 이 改憲案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표결 전날엔 許政국무총리서리가 국회에서 헌법개정안 제안설명을 했었다.

표결당시 개헌안 찬성은 불과 19표였다. 국회의 改憲案否決로 정부와 국회간에는 알력이 생기면서 점차 분위기가 험악해지기 시작했다.

李 대통령은 국회에서 民主國民黨측이 내각책임제改憲을추진해 자신을 去勢할 기미를 보이자, 先手를 써 대통령直選制개헌안을 국회에 냈던것이다. 그때쯤 국회안에는 李 대통령을 옹립하는 自由黨이 胎動해 본격적인 與·野대결로 치닫기 시작했다. 政治史를 얼룩지게한 이른바 政治波動이 시작되었다.

최우수 作品賞에 「초대받은 사람들」

제20회 大鐘賞 시상식

劇映畫우수작품상 「만다라」

주연상엔 南宮遠·丁允姬

감독상 林權澤·신인상 金茂松·明貞玉

◇감독상 林權澤

◇남우주연상 南宮遠

◇여우주연상 丁允姬

◇남우신인상 金茂松

천주교의 수난사를 그린 순교영화 「초대받은 사람들」이 올 大鐘賞에서 영예의 최우수작품상을 차지했다. 23일 하오7시 중앙국립극장에서 거행된 제20회 大鐘賞시상식(영화진흥공사주최)에서 극영화부문의 우수작품상은 두 승려의 상이한 구도과정을 통해 인간의 본성을 묘파한 「만다라」에 돌아갔고 올해부터 外畵수입권이 포상되는 반공영화 특별상은 놓친 공비를 30년간 추적하는 퇴직경찰관의 집념을 그린 「짝코」가 수상했다.

감독상은 「만다라」를 연출한 林權澤감독이 차지했고, 「피막」에서 피막지기로 출연한 南宮遠과 「앵무새 몸으로 울었다」에서 무언의 연기를 해낸 丁允姬가 각각 남우·여우주연상을 수상했다. 또 남우조연상은 金茂松(만다라), 여우조연상은 金炯子(앵무새…)에게 돌아갔으며 金茂松(만다라)과 아역 明貞玉(하늘나라 엄마별이)이 신인상을 받았다. 그 외 스태프에게 돌아가는 부문상은 각본상 金剛潤·金聖和, 각색상 李相炫·宋吉漢, 음악상 崔彰權, 미술상 宋白重, 편집상 李道元, 녹음상 李在雄, 조명상 車正男이 차지했으며, 禹演征·金芝映이 특별상을 받았다. 문화영화부문의 최우수문화영화상은 「열반의 세계」, 우수문화영화상은 「江華」가 차지했다.

黃仁龍、文智晛 콤비와 李德華、林藝眞의 사회로 李鳳祚악단의 감미로운 선율속에 가을밤을 수놓은 시상식은 막간에 배우、가수들의 노래를 곁들여 흥겨움을 더해 주었다. 尹一峰、太賢實의 헌사와 가수 李銀河의 大鐘찬가、文貞淑、羅愛心、丁允姬、鄭薰姬의 노래、한국국악예술학교학생들의 무용과 농악으로 잔치는 무르익었다.

이날 시상식의 하이라이트는 林權澤감독、丁允姬、金茂松의 수상. 「만다라」「짝코」를 연출, 2개제작사에 外畵수입권을 안겨준 林權澤감독은 79년의 갈대상(깃발없는 기수)에 이어 다시 감독상을 수상,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丁允姬는 지난해 여우주연상(뻐꾸기도 밤에우는가)을 수상, 2연패를 기록했는데 전년도 수상자가 올해의 수상자를 발표하는 진행에 따라 자신의 이름을 호명, 장내에 선 폭소가 터져나왔다. 연극배우인 金茂松은 「만다라」로 2개부문 (조연상·신인상)을 수상했는데 『사랑한 보람을 느낀다』며 기뻐했다.

최우수작품상인 「초대받은…」은 수상작의 부문별수상은 이 음악·미술상등 3개부문을 수상한데 반해 우수작품상을 수상한 「만다라」가 감독·각색·남우조연·신인·편집·조명상등 7개부문을 석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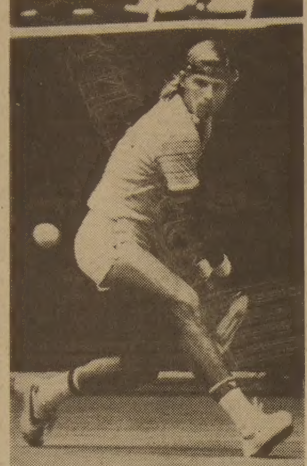
최우수·우수·반공영화는 外畵수입권을 받는 대신 영화인복지기금 1억원씩을 영화진흥공사에 내놓게 된다.

한편 禹演征은 목발을 짚고 열연한 공로로, 金芝映은 30년간 단역으로 한국영화에 이바지한 공로로 특별상을수상했다.

디블리·패튼 單式서 爭霸

賞金1萬弗 아리아스、스캔론 물리쳐

해태盃프로테니스



◇㊤17세의 지미·아리아스와의 준결승전에서 36세의 노장 콜린·디블리가 베이스라인 깊숙한 볼을 백 핸드 스트로그로 넘기고있다. ㊦코트의 재동으로 관중들에게 웃음을 선사한 빈센트·반·패튼이 양손으로 백핸드 드라이브를 걸려는 모습이다.

해태배 프로테니스대회 이틀째 경기가 23일 잠실 종합체육관에서 열려, 단식 준결승서 호주의 노장 콜린·디블리와 美國의 빈센트·반·패튼이 각각 승리, 24일 결승전에서 1만달러의 상금이 걸린 단식 패권을 겨루게됐다. 19년 한 세대의 나이차를 둔 노장과 신예의 대결에서 36세의 노장 디블리는 전날 우승후보 로스코·테너를 꺾은 여세를 몰아 원숙한 게임운영과 다채로운 기교로 17세의 신진 美國의 지미·아리아스를 7-5, 6-2로 완파했다.

빨간머리띠로 금발을 묶은 영화배우 겸업의 패튼은 익살스런 동작과 빠른 발로, 코트를 누비며 강력한 포핸드 드라이브와 두손을 모아치는 백핸드드라이브로 같은 美國의 빌·스캔론을 압도, 6-3, 7-6으로 승리했다.

이번대회서는 예상을 뒤엎고 세계8위의로스코·테너를 비롯 강자들이 차례로 탈락, 69위의 패튼과 1백63위의 디블리가 단식 결승에 올랐다.

디블리는 아리아스와의 준결승 첫세트에서 자신이 서브를가진 제5게임을 더블포인트등으로 러브게임(한포인트도 얻지못함)으로 빼앗겨 4-2까지 크게 리드당했으나 제7게임부터 서브앤드발리의 화려한 게임운영으로 아리아스를 압도, 내리 3게임을 빼앗아 5-4로 전세를 뒤엎었다. 아리아스가 매서운 서브공격으로 5-5까지 추격했으나 디블리는 강서브후 네트를점령, 절묘한 발리로 11번째 게임을빼앗고 이어 날카로운 패싱과 정확한 스매싱으로 아리아스가 서브를가진 12번째게임을탈취, 7-5로 첫세트를 이겼다.

제2세트서도 디블리는 우세한 서브와 발리로 게임을 주도 6-2로 완승. 17세의 아리아스는 첫세트 마지막게임도중 두번째 갈아친 라켓이 망가져 스캔론의 라켓을 빌려 들었으나 네트를 장악한 노장 디블리에게서 헛점을 찾지 못했다. 패튼은 마치 서부극의 총잡이 처럼 능숙하게 라켓을 휘두르는가하면 상대의 결정타구에 라켓을 던져놓고 박수갈채를 보내는등 프로선수다운 여유와 익살로 관중들을 웃기며 볼하나 하나를 끝까지 추격하는 끈질긴 승부정신으로 35위의 스캔론을 일방적으로리드했다.

◇제2일전적

▲단식준결승

디블리 2 (7-5 6-2) 0 아리아스

패튼 2 (6-3 7-6) 0 스캔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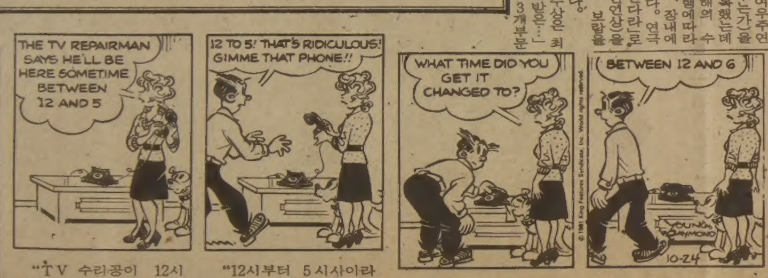
來12일 開幕 亞洲남자籠球

【뉴델리22日AP=聯合】제11회 아시아남자농구선수권대회가 한국과 中共및 대만등 21개국이 참가하는 가운데 11월12일 캘커타에서 개막된다.

이대회 참가국은 주최국印度를 비롯하여 한국·中共·대만·日本·홍콩·필리핀·타이·말레이지아·인도네시아·싱가포르·방글라데시·파키스탄·이란·이라크·쿠웨이트·스리랑카·시리아·다란·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마카오등이다.

조규혁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상점보험
●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블론디 딘·영 作 本社特約·連載漫畫



"TV 수리공이 12시부터 5시사이에 오겠다는데요" "12시부터 5시사이라고! 이런 엉터리같으니라구! 전화 이리내봐" "그래서 몇시로바꿨어요?" "12시부터 6시 사이로"

주간女性 한국일보 주간女性

개업1주년 김장 써비스

❋❋❋ (최고의 품질) ❋❋❋

✷ 새 우 젓
✷ 고추가루
✷ 멸치젓, 황새기젓및
기타 다양한 품목의
스페샬

● 배달도 합니다

동 양 식 품
1662 JANE ST.
248-5131

미도파백화점 확장기념

밍 크

특별쇼 (할인대매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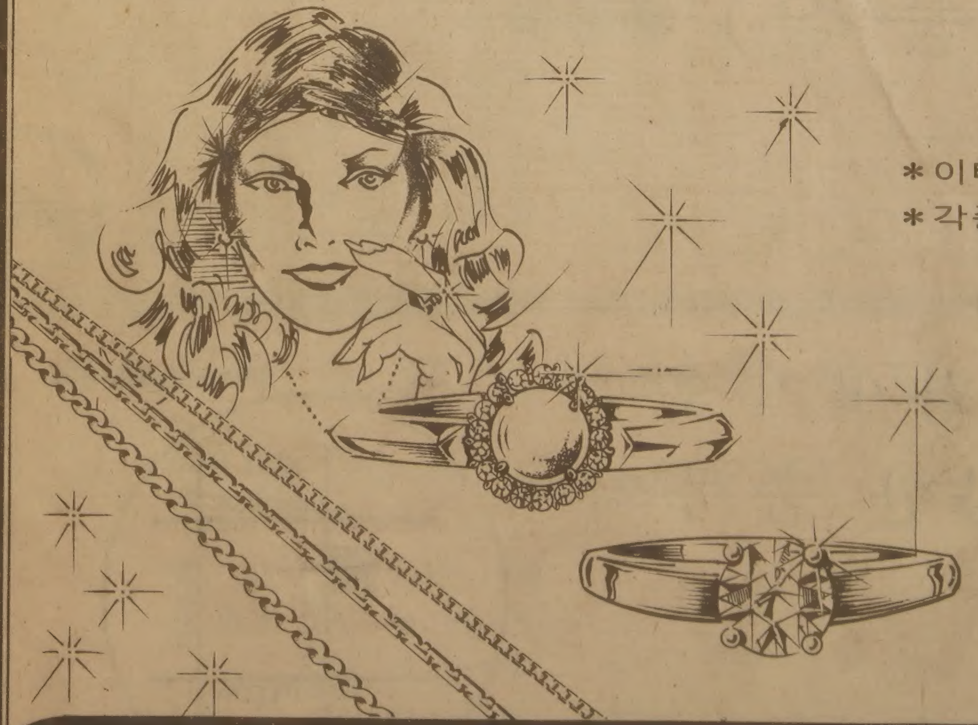
(NOV. 6.7.9. 3 days.)
(金, 土, 月)

✂안내말씀

교포여러분께서 키워주신 저희 미도파선물센타를 확장하여 이번에 **미도파백화점**으로 개칭하고 고객 여러분께 보다나은 봉사와 저렴한 가격으로 써비스 해드릴 준비를 갖추었아오니 부디오셔서 애호와 편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도파백화점 대표 장 추 신 배

미도파백화점 확장기념으로 30여년의 경험을 쌓은 W. EINHORN FURD LTD. 에서 공장도 가격으로 제공하는 100여종 패턴의 밍크및 모피제품을 파격적 가격으로 대매출 하오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한번 왕림하시기를….



* 이태리제 14K, 18K(금목거리, 오팔, 사파이어, 루비, 진주등)
* 각종고급시계등

본 미도파에서는 여러분들의 정확하고 확실한 투자 또는 기호를 위해 지난 3년간 귀금속에 대한 특별한 연구와 전공정을 직접 공장에서 연마하였아오니 모든 상담을 바라고 있읍니다.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TORONTO, ONT.
B. 536-1692 R. 245-3539